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제916호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KB금융 내홍 벼랑끝… 오늘 결단

이사회 열어 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공방 펼칠듯
'극적 봉합이냐' '법정싸움 파국이냐' 중대고비

전산시스템 교체를 두고 내홍에 휩싸인 KB금융그룹이 30일 오후 6시 국민은행 이사회를 계기로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앞서 23일 열린 이사회가 소득 없이 끝난 터라 이날 이사회는 이건호 행장과 대립각을 세운 사외이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내분 사태의 핵심인 은행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보고를 받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특별검사가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 사외이사 등 그룹 수뇌부의 계좌까지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쉽게 타협점을 찾긴 힘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결국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발생한 갈등이 외부에 알려진 지 열하루 만에 KB금융이 표면적이라도 갈등을 봉합할 것인지,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파국을 맞을지 기로에 서게 됐다.

이날 이사회의 핵심은 정병기 상임감사가 주전산기기 교체를 둘러싼 의혹을 자체 감사하며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판단이다. 앞서 감사위원회가 1차적으로 이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보고를 받는다. 당초 감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에 비하면 분위기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한 전례가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감사보고서에는 'KB금융지주가 한국IBM 소요 비용을 높게 산정하고, 유닉스로 전환하는 비용은 축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행장이 금감원 특검을 요청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KB금융지주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감사보고서가 왜곡됐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특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닉스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체 선정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표결을 통해 유닉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행장이 또다시 이사회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 등으로 맞서면서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할 경우 금감원 특검 결과를 놓고 다시 입장을 정리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다음주로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금감원의 특검 결과가 나와야 이번 내분 사태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쌍용자동차 3000억 투입 프리미엄급 SUV 만든다

배기량 2000cc 이상 고사양
'Y400' 2016년 말 출시 계획



쌍용자동차가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개발에 착수했다.

이유일〈사진〉 쌍용차 사장은 30일 평택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대주주 마힌드라그룹의 이사회에서 'Y400(프로젝트명)'의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Y400은 '렉스턴'보다 상위 차급이 될 것"이라며 "차량 개발에는 모두 3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2년 반의 개발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6년 말 Y400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쌍용차의 주력 SUV의 배기량은 2000cc다. 그러나 Y400은 배기량이 더 커지고 성능이 강화된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가 프리미엄 SUV 개발에 나선 것은 고사양 차량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의 '모하비', 현대자동차의 '맥스쿠르즈'는 올 들어 국내 판매량이 30~50% 증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쌍용차는 Y400을 통해 고사양 SUV를 원하는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내년 초 출시되는 소형 SUV 'X100(프로젝트명)'과 관련해서는 "1월 가솔린 모델이 나오고 7월에는 디젤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X100은 '코란도'보다 좀더 승용차 느낌이 날 것"이라며 "경쟁차를 따지자면 기아차의 '쏘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성능이나 연비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다른 소형 SUV보다 훨씬 좋다"며 "가격도 경쟁력을 갖췄고 물량은 연간 8만대 정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관계자는 "X100과 Y400이 출시되면 쌍용차는 소형 SUV부터 대형 SUV까지 모든 차급을 갖추게 된다"며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는 만큼 회사의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택=최재혁 기자 freshphase@

환율 1020원선 무너져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저지선인 1020원대가 일단 무너졌다.

이달 영업일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6원 내린 1018.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9시 19분 현재 0.2원 하락한 1020.4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환율은 1020원에 바짝 다가갔으나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1020원선이 가까스로 지켜졌다. 하지만 월말 네고 물량 유입,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 대규모 경상흑자 규모 등이 지속되면서 이날 1010원대로 진입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9일 1050원선이 무너진 데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7일 1030원도 하향 돌파하는 등 가파른 하락세를 타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1020원 하회 가능성이 높으나 외환당국이 속도 조절에 나서 내림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mint@

홍명보호, 사전투표하고 결전의 장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30일 오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신화에 도전하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마지막 전지 훈련지인 마이애미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G3' 나오자마자 공짜폰·마이너스폰?

이통 영업점 "보조금 100만원" 온라인서 게릴라 마케팅…당국, 전격 시장조사

LG전자의 전략폰 'G3'가 나오자마자 통신시장에서 공짜폰으로 전락했다. 통신사 영업점들이 1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89만9800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이 0원에 팔리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G3는 출시 하루 전인 27일 예약판매를 통해 1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이 투입되며 0원에 팔렸다. 출시 당일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페이백 정책을 통해 마이너스 폰으로까지 전락하기도 했다.

29일 한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번호이동의 경우 G3를 69요금제(6만9000원)로 3달간 사용할 경우 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30분간 신청받은 후 바로 삭제됐다. 이른바 스팟성 정책으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한 일시적 판매다.

업계에선 점유율 싸움이 치열한 이통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와 관련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판매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스팟성으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G3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28일 이통3사 임원을 긴급 소집하고 시장 과열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방통위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에 나섰다. 영업재개 후 9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영업재개 후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 평균 5만건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주도 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싸이 돌아온다" 테마주 콧노래

내달 신곡 발표 컴백 가시화
이스타코·디아이 등 상승세
소속사 YG도 연이틀 올라



가수 싸이가 6월 신곡을 발표하고 컴백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틀째 상승세다.

30일 오전 9시 5분 현재 이스타코는 전 거래일보다 6.76%(340원) 오른 5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이스타코는 14.84%(650원) 오른 4965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쳤다. 이스타코가 지분 90%를 보유한 얼반웍스미디어가 지난 2012년 9월 미국 빌보드사의 한국지사 빌보드코리아와 공동 비즈니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싸이 테마주'로 분류됐다.

싸이의 부친인 박원호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디아이도 전 거래일보다 1.21%(100원) 오른 1만2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도 7.86%(900원) 상승했다. 싸이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오로라도 전 거래일보다 1.74%(200원) 오른 1만1700원에 거래 중이다.

싸이의 소속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역시 전 거래일보다 1.12%(500원) 오른 4만5250원에 거래되며 이틀째 상승세다.

한편 UPI 등 외신은 싸이가 6월 미국 ABC방송 유명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게임 나이트(Jimmy Kimmel Live: Game Night)'에 힙합 뮤지션 스눕독과 함께 출연한다고 보도했다.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하는 두 사람은 할리우드 배우 캐머런 디아즈, 밀라 쿠니스, 제이슨 세걸 등과 함께 게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토크쇼는 6월 5일부터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 경기가 있는 날마다 '게임 나이트'란 특집으로 꾸며진다.

'젠틀맨' 활동 이후 오랜만에 출연하는 방송이기에 싸이의 6월 컴백이 가시화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팬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싸이가 6월 컴백한다면 지난해 4월 발표한 '젠틀맨'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송영록 기자 syr@

숫자로 본 NEWS

4월 해외관광지출 사상 최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해외 관광지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내국인의 해외 관광지출은 16억96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7% 나 늘었다. 이는 휴가철인 작년 7월(16억7100만 달러)의 종전 월간 최대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단체 해외 관광은 대거 취소됐지만 가족 등 개별 해외 관광객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진영 기자 mint@

男들도 피부는 소중하니까~

한국 남성이 스킨케어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로모니터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은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1인당 25.3달러(약 2만5700원)를 썼다. 이는 2위를 기록한 덴마크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전체 지출 기준으로는 중국이 9억748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남성용 스킨케어 시장은 올해 12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은 6억3500만 달러로 2위에 올랐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하성민 사장 ▶10
이장규 부총장 ▶16

Star 금요섹션 17~23면

커버스토리
유니폼, 경기를 지배하다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우리는 1등 기업… 현대카드는 2등 마케팅"

빅데이터 경영 선언, 위성호의 자신감

'코드나인' 상품체계 발표
"디마케팅 전략 관심없어"



위성호〈사진〉 신한카드 사장이 2200만 명의 고객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경영'을 선언했다. 위 사장은 빅데이터를 통해 침체기의 신용카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성호 사장은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상품체계인 'Code 9(코드나인)'을 소개하며 빅데이터 경영의 본격화를 알렸다.

지난해 말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신한카드는 22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비슷한 패턴을 공유하는 집단을 남녀 각각 9개 그룹으로 분류한 'Code 9'을 소개했다. 또'Code 9'을 적용한 첫 신상품도 선보였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최초의 카드다. 하지만 이날 현대카드의 상품체계인 '챕터 2(CHAPTER 2)'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을 받은 위 사장은 "우리는 (시장점유율) 절대 1위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카드와 같은 마케팅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챕터 2를 통해 '포인트·캐시백' 양축으로 카드 소비자들의 특성에 주목한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카드는 월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한도 제한 없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몸집을 불리는 대신 '우량고객'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위 사장은 현대카드의 챕터 2에 대해 "현대카드는 2위 그룹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신한카드는 절대적 1위 기업이므로 특정 고객을 디마케팅하는 전략을 취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디마케팅은 고객의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여 수익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뜻한다. 신한카드의 고객 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층을 흡수하기 위해 여러가지 상품 체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지만 현대카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현대카드는 2위 경쟁을 목표로 삼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신용카드 사업은 규모의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시장점유율 10%를 차지하는 기업이 내는 수익과 20% 점유율 기업의 수익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중복비용이 절감되고 제휴 협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위성호 사장의 발언 속에는 카드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했으며 규모 1등의 순위가 바뀌기 힘들 것이라는 자신감이 내재돼 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지난 1월 정보유출이라는 외부 변수가 있었지만 업계 구도가 재편되거나 지각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이런 시장의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빅데이터가 카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엘리 기자 ellee@

서창환 vs 야마다 '디지털피아노' 제대로 붙는다

〈영창뮤직 대표〉 〈야마하뮤직코리아 대표〉

영창뮤직과 야마하뮤직코리아가 같은 날 디지털피아노 신제품을 출시하며 정면 충돌했다.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70%를 점령하고 있는 두 업체는 정체된 피아노 시장을 전자악기로 공략하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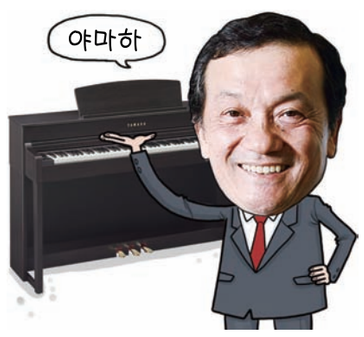
영창뮤직이 29일 내놓은 신제품은 2년간 1000만 달러 이상의 R&D 비용을 들여 완성한 디지털피아노 '안단테 시리즈' 3종이다. 안단테 시리즈는 영창뮤직이 6단계의 다이내믹 벨로시티를 구현한 제품이다. 벨로시티란 실제 피아노처럼 건반을 누르는 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소리가 들리게 만드는 기술이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피아노는 1단계에서 최대 4단계까지 표현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서창환 영창뮤직 대표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완성한 고성능 제품"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대표는 실제로 이번 신제품을 위해 오랜 시간 연구개발비를 들여 신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이를 통해 디지털피아노에서도 원음과 같은 풍부한 사운드를 구현했다. 신제품의 원음은 독일 그랜드피아노를 샘플링한 음색을 기본으로 했다.



영창, 6단계 다이내믹 벨로시티
2년간 R&D 비용 1000만달러



야마하, 자녀교육 수요 공략
바이엘·체르니 교육음원 내장

'국내 1위'·'세계 1위'… 어제 신제품 동시 출시

영창뮤직은 안단테 시리즈 중 CUP110 모델을 내놓은 데 이어 내달 CUP2A와 CUP120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과 유럽 지역에 순차적으로 출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영창뮤직이 신제품을 내놓은 날 공교롭게도 야마하뮤직코리아도 어쿠스틱 피아노의 사운드와 터치감을 재현한 디지털피아노를 선보였다.

야마다 도시카즈 야마하뮤직코리아 대표는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료를 통해 "이번 신제품은 3년여에 걸친 국내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소비자가 자녀 교육용으로 피아노를 구매한다는 점을 고려해 제작했다"며 "아이들의 음악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쿠스틱 피아노를 재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야마하가 내놓은 신제품은 'CLP-500 시리즈'로 CLP-525, CLP-535, CLP-545 등 3종이다. 인조 상아 건반을 장착해 실제 피아노와 같은 터치감을 재현했다는 게 강점이다.

야마다 대표는 또 "자녀 교육에 열정이 높은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바이엘, 체르니, 하농, 부르크뮐러와 같은 교육용 음원을 디지털피아노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쿠팡 김범석의 美투자 유치 직원들도 외신 보고 알았다

김범석〈사진〉 쿠팡 대표의 '고객중심' 경영전략이 '대박'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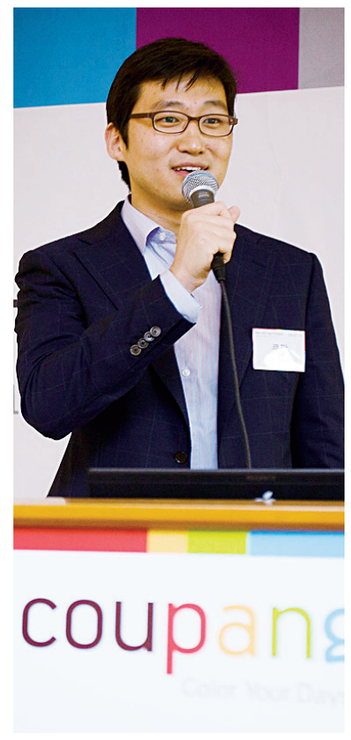
30일 미국의 투자 전문회사 세쿼이아캐피털 등이 주도한 투자사들로부터 1억 달러(10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하지만 양도 지분율과 기업평가액은 비밀에 부쳐졌다.

세쿼이아캐피털은 애플컴퓨터·구글·시스코·오라클·야후·링크드인·자포스·유튜브·페이팔·드롭박스 등에 투자한 투자 전문회사다.

이 회사는 쿠팡을 차세대 이커머스 리딩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투자는 세쿼이아캐피털 회장인 마이클 모리츠가 직접 주도해 미국 내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이클 모리츠 회장은 "김범석 대표와 쿠팡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엄선된 상품을 소싱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고객 만족 서비스, 혁신적 기술력 등 쿠팡의 모든 부분과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집중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세쿼이아캐피털서 1020억원 규모
"고객중심 경영전략에 감명받았다"

이에 김범석 쿠팡 대표는 "세쿼이아캐피털은 미국에서 혁신적 기업들과 함께하며 폭넓은 경험과 성공을 이끈 곳"이라며 "쿠팡이 틀을 깨는 혁신으로 이커머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든든한 지원자이자 파트너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 "투자유치를 통해 급격히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양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쿼이아캐피털의 쿠팡에 대한 투자 조건은 전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의 경우 지분을 갖게 되는데 지금까지 쿠팡이 밝힌 지분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며 "투자 규모가 아닌 지분 평가액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자에 대한 소식을 쿠팡 내부 직원들조차 외신을 통해 알게 됐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역시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한 것이 없다"면서 "세쿼이아캐피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쿠팡이 처음이고, 이는 한국시장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투자에서 쿠팡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0200억원)로 평가됐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추정일 뿐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쿠팡은 지난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돼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2012년에 이어 지난해 역시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대표는 1978년생으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보스턴컨설팅 그룹 컨설턴트와 빈티지미디어 대표를 지내다 2010년 쿠팡을 설립했다.

김태헌 기자 119@



이투데이는 굿네이버스를 응원합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별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응원도 받아보지 못한 쓰레기 줍는 소년이지만,
언젠간 수많은 관중의 응원을 받는 축구선수를 꿈꾸는 소년

이 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최초의 관중이 되기로 했습니다
냄새 나는 이곳을 벗어나 더 높은 곳에서 반짝일 날을 기다려봅니다

가수 김장훈

내일을 잃어버린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필요한 해외아동과 후원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희망 TV SBS와 함께하는 〈희망 축구단 프로젝트〉로 아프리카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신청 (매월 3만원)
1599 - 0300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35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www.gni.kr 굿네이버스 Good Neighbors

사진 ⓒ 채우룡/ 굿네이버스

‘국민’ 신뢰 잃고 돈도 잃고…직원들은 애간장만 탄다

전산교체 ‘내홍’ 승자없는 싸움

KB국민은행 경영진 간 갈등은 ‘치킨게임’으로 비유된다.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시작된 갈등은 리베이트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혔다.

오늘(30일) 임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이 감사의견을 청취키로 하면서 내분사태 봉합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이 고객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금융당국 제재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예고돼 있다는 것이다.

SK C&C외 추가 입찰사 없어
IBM 월 연체사용료 87억 될 듯
3월 원화예수금 0.84% 증가 그쳐
민원처리 평가도 최하위 ‘빨간 딱지’

우투증권 패키지 인수실패 이어
LIG손보 M&A도 무산 땐 부담
1분기 당기순익 등 실적 크게 줄어
“내부 리스크 확산…후유증 심각”

◇국민은행 경영진 갈등 후유증 심각 = 이번 사태로 당장에 예상되는 피해금액은 ‘87억원’이다. 전산시스템 교체 지연으로 국민은행이 IBM측에 지불해야 하는 월 연체 사용료다.

전일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입찰제안서(RFP) 마감 결과, SK C&C 이외에 추가로 응찰한 곳이 없어 연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고객 신뢰도 하락이다. 소매금융 기반의 국민은행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지난해 취임한 이 행장이 힘을 싣고 있는 ‘스토리금융’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내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3월 말 기준 원화예수금 잔액은 195조 63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164조원)대비 0.8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189조8300억원→194조1600억원) 2.28%, 하나은행(107조4200억원→109조1020억원) 1.57%, 신한은행(168조600억원→169조9800억원) 1.14% 등 4대 은행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낮다.

더욱이 지난해 국민은행은 민원처리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지점에 ‘빨간딱지’가 붙여지는 굴욕을 겪고 있다.

단단히 벼르고 있는 금융당국의 제재도 앞두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20여 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하고 검사기간도 다음달 초까지 연장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을 풀기 위해 수뇌부 계좌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엄중 경고한 상황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M&A 등 성장전략 ‘올스톱’ = 이번 사태로 KB금융은 모든 성장전략이 올스톱됐다. 기선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던 LIG손해보험 인수전도 낙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보고펀드, 자베즈 파트너스·새마을금고 컨소시엄, 중국 푸싱그룹 가운데 KB금융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인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와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 실패에 이어 LIG손보 인수까지 실패할 경우 현 경영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KB금융은 비은행 계열사 확대를 통해 수익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KB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7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38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순익 추정치(약 430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자회사인 국민카드가 연초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영업정지 등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난국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낮은 성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M&A가 필요한 상황이나 최근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문제,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갈등 등 내부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KB금융, 전산 교체 관련 일지



- 2013년 7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외부 컨설팅 용역
- 10월: 국민은행, 금감원에 전산시스템 전환 관련 보고
- 12월: 국민은행 경영협의회, IBM에서 유닉스로 변경 결정
- 2014년 4월 14일: 한국IBM 사장, 이건호 행장에게 IBM가격 인하 내용 등 이메일 보냄
- 24일: 이사회는 2대 8로 유닉스 전환 결정 정병기 감사, 자체 감사 실시
- 5월 16일: 감사위원회, 정병기 감사의 감사보고서 채택 거부
- 18일: 국민은행, 19일 이사회 소집을 지주에 보고 KB지주, 감사위원회 의견 따르라고 공문 발송
- 19일: 이사회, 정병기 감사 보고서 채택 거절 정병기 감사, 금감원에 보고 및 금감원 특검 착수
- 20일: 국민은행, 이사회 결정 가처분 신청 검토
- 21일: 전산교체 입찰에 SK C&C 한곳만 참여 은행 사외이사, 긴급 이사회 23일 소집
- 22일: 임영록 회장, 은행장 중심으로 봉합 지시
- 23일: 이사회 개최, 진상조사위 구성 놓고 격론
- 26일: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 면담서 30일 빠른 해결 요구
- 29일: 전산교체 추가 입찰 참가사 없어
- 30일: 감사 위원회 · 이사회 개최

전산교체 추가비용이 쟁점 국민銀 이사회 ‘신경전’ 예고

오늘 특별감사보고서 논의할 듯

정병기 감사 “리스크 비용 추가해야”

사외이사 “보고서 내용 자체가 왜곡”

30일 오후 열릴 국민은행 이사회에선 주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른 추가비용 1000억원을 놓고 경영진과 사외이사 사이에 신경전이 예고된다. 국민은행은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특별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병기 상임감사가 작성한 특별감사보고서엔 지주회사가 주전산시스템을 IBM으로 유지하는 비용을 높게 산정하고 유닉스로 전환하는 비용은 축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IBM이 제안한 가격을 명확한 근거 없이 410억원가량 높게 산정하고, 유닉스 전환에 따른 비용은 100억원 정도 축소 보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보고서엔 유닉스로 주전산시스템 교체시 추가비용이 들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벤치마크 테스트(BMT) 결과, 유닉스 교체 후 리스크 발생시 1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 감사는 BMT항목 중 일부만 검증했을 뿐 추가 검증이 요구되는 상당 부분에 대한 BMT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측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이사회가 주장한 전산시스템 교체비용 2000억원보다 1000억원이 늘어나 3055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사외이사들은 3055억원이란 금액은 단지 시장 가격을 취합해 본 것일 뿐이며 실제 비용은 입찰 과정에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기 감사는 또한 주전산시스템 교체 결정 과정에서 사용된 근거서류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정 감사 등 감사부서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했을 시 위험요인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수정하는 등 각종 검토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사외이사측은 일부 성능 문제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사회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보고서를 두고 사외이사들과 이건호 행장 측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별감사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이사회에서 이뤄지더라도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에 갈등의 골이 깊은 탓이다.

그 동안 감사보고서를 놓고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채택할 수 없다”며 이사회 상정에 반대해 왔다. 이 행장 측은 이사회에 상정해 수정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지주회사가 안건 상정 자체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주치의’는
엄격하게 선발된
자산관리 전문가
입니다.



전문금융지식과 투자컨설팅경험을
갖춘 165명 금융주치의들이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적의 자산 리벨런싱을 제안합니다.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 금융주치의는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제 41-0271044호)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2245호(2014.04.07 ~ 2015. 04.06)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北과 손잡은 아베… 허찔린 朴대통령

'韓美日 대북공조' 균열

日 납치문제 재조사 놓고 대북 독자제재 해제 발표

정부, 발표 직전 통보받아 핵실험 등 악영향 우려

북·일 협상 일지

2008년	9월	북, 납북자 조사-대북제재 해제 합의 백지화
2012년	8월 9~10일	북·일, 일본인 유골 반환 합의
2012년	12월 1일	북 미사일 발사 예고에 일 정부 회의 연기
2013년	5월 14~17일	일 내각관방 방북
2013년	11월 2~7일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 방북
2014년	3월 3일	중국 선양서 북·일 적십자 회담
2014년	3월 10~14일	요코타 메구미 양친과 메구미 딸 몽골서 첫 면회
2014년	5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서 북·일 국장급 회담

정부는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하고 일본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 등 미묘한 시기에 이뤄진 일본의 이런 단독행동이 '한·미·일 대북공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9일 일본의 발표 직전 일본 측으로부터 합의 내용을 외교경로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은 그동안 예상했던 수준에 그쳤지만, 전격적 타결과 합의 발표 소식에 정부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일의 이번 합의가 한·미·일 3자간 북핵공조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로의 외교 목표가 상충할 수 있는 만큼 각자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본의 양자 제재가 여행 또는 입항, 송금 제한 등이어서 제재가 풀리더라도 다시 복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서로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납북자 문제가 일본 외교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한·미·일·중·러 등 5자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높은 관심을 고리로 대북 국제공조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경제적 지원도 얻을 수 있게 돼 여러 실익을 얻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북·일 간 합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여러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투명한 납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북·일 협상이 전반적인 대북 제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계획에 대해 어떤 확인도 받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이통사 영업정지 놓고 갈팡질팡하는 방통위

SKT 7일·LGU+ 14일 예정

"경영악화 우려"… 보류 결정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가 연기됐다. 불법 사항에 대한 제재가 반년 이상 미뤄지면서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실패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던 SK텔레콤(7일)과 LG유플러스(14일)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보류키로 했다. 제재 시기는 추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결과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미래부의 45일간 영업정지 제재를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휴대폰 유통점들의 경영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대신 현재 제재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앞으로는 시장 주도 사업자를 한 곳만 선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보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한 1개사만 사실조사를 거쳐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부터 지난 20일 기준으로 앞으로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을 파악하는 시장조사에 착수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이번 영업정지 보류를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제재는 올해 1, 2월 불법 사항에 대한 징벌인데, 불법행위와 제재 간의 시기가 너무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제재를 유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방통위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 방침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시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채 땜질식 처방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미래부의 영업정지 일정과 맞물려 부득이했다"며 "추후 분명히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사전투표 돌입… 與野 지도부 "주말 잡아라"

세월호 참사에 '앵그리맘' 확산

위기감 느낀 '보수표' 막판 결집

박빙 예고에 주말 '표심' 변수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 오전 6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전국 3506곳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여야 지도부는 마지막 주말 수도권을 비롯한 경합지를 찾아 총력전을 펼친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해 특정기간을 지정,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장거리 출장 중이거나 여행 중인 유권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요일과 주말인 토요일 시행되는 만큼, 젊은층의 참가도 소폭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 사전투표는 투표율 상승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에 대한 실망이 지방선거에 표심으로 드러날지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속설도 지난 대선에서 깨졌고, 사전투표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투표율 상승이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세월호 참사로 선거 국면이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위기감을 느낀 보수표가 막판 결집력을 발휘할 경우 박빙인 지역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경합을 펼치는 경기, 강원, 충청, 부산 등의 후보 캠프에서는 투표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박대출 의원은 주말 유세를 앞두고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진심을 보이는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기본자세로 국가 개조작업을 충실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대변인 박종완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치르려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후보를 비롯한 일부 후보들이 극도의 네거티브를 펼침으으로써 선거판이 당초 의도대로 차분하게 흘러가지 못했다"며 "남아 있는 선거기간에 국민들의 충격의 무게를 공감하면서 안전에서 더욱 큰 의미로 이제는 대한민국 삶을 바꿔야 한다는 깊은 고민을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국정조사계획서 통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건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국조에 '왕실장' 나온다

내달 2일부터 90일간 진행

기관보고 '靑 비서실장' 포함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가 내달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진행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회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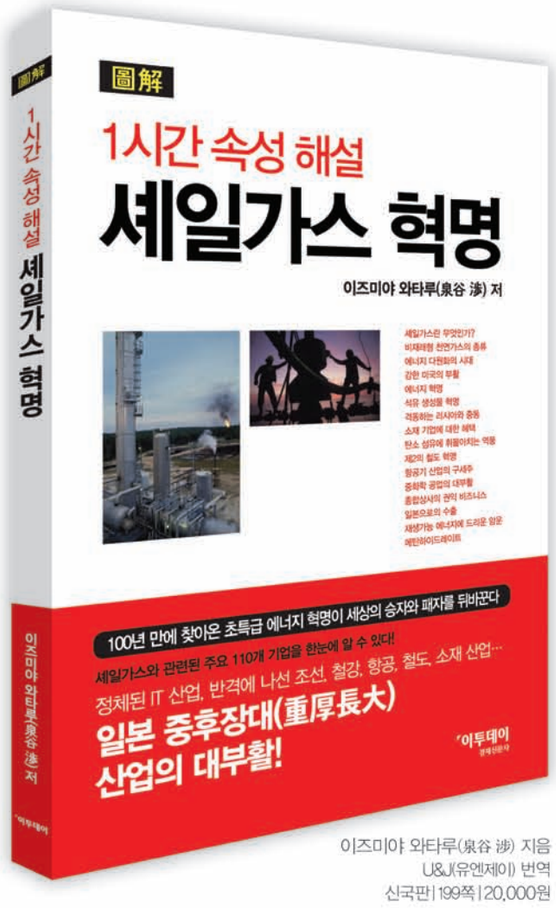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은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청문회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조 활동기간은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협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이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 조사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명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김 실장의 이름을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실'이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그가 비서실장직을 유지하는 한 국회 특위에 참석해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교육청 등이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공석인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은 일단 차석(次席)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넣기로 하고, 일단 기타 기관에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포함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세월호 여파로 지난달 생산지표 뒷걸음

'산업활동동향' 0.5% 감소
서비스업 큰 폭 하락 영향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실물경기지표에 영향을 미쳐 4월 생산지표가 소폭 내려앉았다. 소비를 나타내는 판매액지수도 하락했다.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에 의한 영향이 컸지만 세월호 참사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반등을 보였던 전산업생산이 지난달에는 전달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대표지표인 광공업생산은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고 설비투자도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에서 예술·스포츠·여가업 등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 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도 약세를 보였다.

제조업 대표지표인 광공업생산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금속가공(-6.6%), 자동차(-2.5%) 등에서 감소했지만 기타운송장비(10.6%), 화학제품(3.4%) 등이 늘어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할 수 있는 제조업재고는 전월 대비 1.5% 증가했고 제조업평균가동률도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해 77.5%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생산지수가 떨어졌다. 협회·수리·개인(3.5%), 부동산·임대업(2.7%) 등에서 증가했지만 도소매(-1.8%), 예술·스포츠·여가업(-11.6%) 등이 그보다 큰 폭으로 줄어 전체적으로 1.0% 감소했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지수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달 대비 1.7% 감소했다. 소비심리 위축에 의한 의복 등 준내구재(-3.0%)와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9%), 그리고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에 따른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3%)에서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감소했지만 일반기계류와 자동차 등에서 투자가 늘어 전달보다 2.6%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7% 올랐다. 국내기계수주는 기타운송장비와 자동차·트레일러 등에서 수주가 증가해 작년 같은 달보다 25.7%나 뛰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준조세 성격 부담금 '1인당 32만원'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이 알게 모르게 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규모가 3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국민 1인당 32만6400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수가 96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지만 징수규모는 16조3934억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고 밝혔다. 이를 지난해 총인구 5022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평균 법정부담금이 32만6000원이다. 이는 전년 1인당 부담금 31만4000원보다 1만2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2002년 1인당 부담금 16만6000원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나 담배가격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부담금을 대폭 통폐합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부처의 반발로 지난해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만 폐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부담금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전기 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전년보다 1640억원 늘었다. 또 외환건전성부담금도 징수가 본격화하면서 전년보다 1009억원 증가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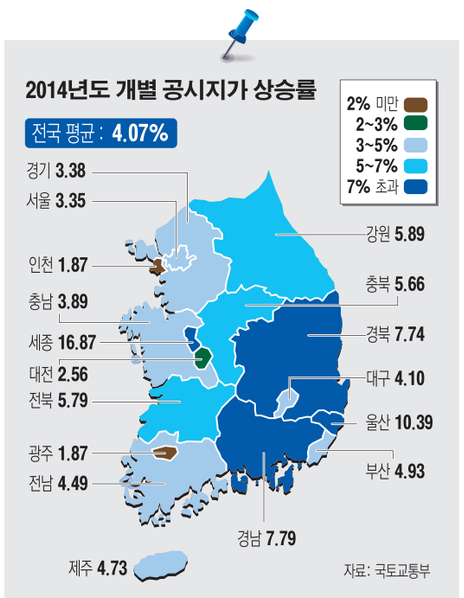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비은행금융사와 교류"

이주열(오른쪽 두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열린 보험, 증권,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에서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정보 교류와 소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가장 비싼 땅 10년째 충무로 네이처 리퍼블릭

전국 개별공시지가 4.07% 올라



올해 전국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평균 4.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의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로 1㎡당 가격이 7700만원(평당 2억5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의 올해 1월 1일을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30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를 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보다 평균 4.07% 상승해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도 늘게 됐다.

국토부는 침체됐던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과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겹친 영향 등이 올해 토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봤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도권이 3.23%, 광역시(인천 제외)는 4.6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6.12%였다.

수도권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 반면 광역시나 시·군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이다.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지방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데다 지역 간 실거래가 반영률을 맞추려는 정책적 고려가 함께 나타난 결과다.

수도권에서도 특히 인천(1.87%)의 상승률이 낮았고 서울은 3.35%, 경기는 3.38%였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33.14%), 경북 예천군(21.05%), 세종(16.87%), 경북 청도군(16.44%), 울산 동구(16.06%)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울산(10.39%), 경남(7.79%), 경북(7.74%), 강원(5.89%)의 상승률이 높았고 광주(1.87%)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6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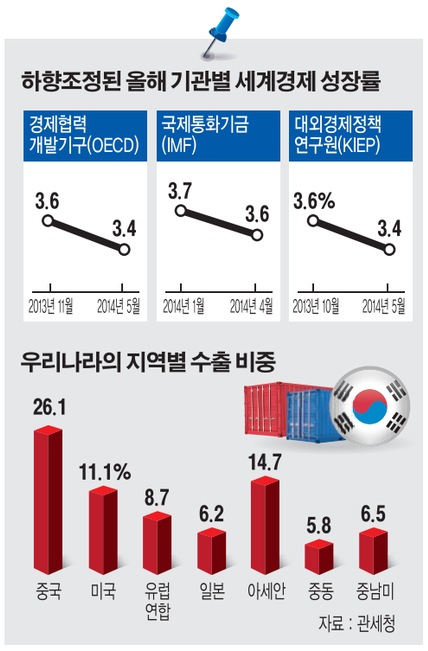
유충현 기자 lamuziq@

세계경제 '스태그네이션' 위기감

신흥국 경기둔화 움직임 뚜렷
경제성장률 전망 잇따라 낮춰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경제 타격

세계경제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장기경기침체)'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가 크지 않으며 신흥국의 경우 경기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청년층 고실업, 저조한 소비와 투자, 저물가 등 고질적인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기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세월호 참사에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여파로 당분간 수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올해 세계경제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10월에 내놓은 전망치 3.6%보다 0.2% 포인트 내려잡은 것이다.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회복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의 신흥개도국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하향 조정 배경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초 세계경제 성장률을 작년 11월 전망치(3.6%)보다 0.2%포인트 내려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월 3.7%에서 4월 3.6%로 성장률을 소폭 하향조정했다.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영향, 유로존 금융시장 불안정성, 일본 재정긴축 등의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장기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생산활동과 가계소비 의욕 저하에 따른 수요 부진이 꼽힌다. 유로존은 지난해 -0.3% 성장률에서 올해 1.1%로 돌아섰지만 저물가 기조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실업률이 10%를 넘는 회원국이 많다는 게 걸림돌로 지목됐다. 일본 경제도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 약화로 성장세가 둔화해 올해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경우 1분기 중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작년 4분기(13.5%, 19.6%)보다 낮은 각각 12.0%, 17.6%를 기록, 수출, 투자, 소비 등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경착륙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남미도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대형인프라 투자 축소에 따른 투자부족과 고물가 등 소비부진으로 저조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러시아 역시 올해 정정불안과 실질 소득감소로 투자와 소비부진이 계속돼 0.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일형 KIEP 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높은 실업률, 소비 회복의 지속가능성 여부, 인프라 투자 같은 장기적인 투자들이 저조한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26.1%), 유럽연합(8.7%), 중남미(6.5%) 등의 수요 부진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개방형 경제가 특징인 우리나라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규모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에 따르면 살아나는 듯했던 국내 제조업체의 체감경기지수가 원화 강세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넉 달 만에 뒷걸음질쳤다.

전민정 기자 puri21@



서진원 신한은행장 印尼 다녀온 까닭은

현지銀 지분 인수 승인 미뤄져… 1년6개월째 제자리
동남아 신한벨트 구축 지연… 위기의식에 직접 방문



신한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1년6개월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현지 은행인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BME) 지분 인수에 대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진원(사진) 행장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동남아시아 신한벨트 구축이 지연되는 사이 우리, 하나·외환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사를 인수하고 통합법인을 출범하며 발빠르게 움직이자 위기 의식을 느낀 서 행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 행장은 비공식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 메트로 지분 인수에 대한 빠른 승인을 요구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서 행장이 메트로 인수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에 다녀 왔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2년 12월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 지분 4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JK의 주식인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OJK는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글로벌 전략을 총괄하는 설영오 부행장이 2박 3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올 초 OJK 고위 관료들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신한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승인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본·베트남·중국·인도·인도네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신한 아시아 금융벨트'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한은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예대마진이 4~6%에 달할 정도로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어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곳이기도 하다.

서 행장은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인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올 초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사우다라은행 지분 33% 인수에 대해 현지 금융당국으로 부터 최종 승인을 얻었다. 지난해 9월 브라질 현지법인을 설립해 국내은행 최초로 브릭스 영업벨트를 구축한 우리은행은 사우다라은행 인수로'범 아시아 벨트' 계획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하나·외환은행 역시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현지 통합법인인'PT Bank KEB Hana'를 출범시켰다. 국내 금융그룹 중 최다 해외 네트워크인 24개국 127개를 보유한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통합으로 그룹의 전략 목표인 '2025년 글로벌 비중 40% 달성'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감독기관이 신설되면서 금융부분 규제가 강화돼 국내 금융사 진출이 어려워졌다"며 "이 때문에 신한은행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한국 동북아총괄본부 격상 中企 금융지원 강화하겠다"

아제이 칸왈 한국SC은행장 "더 중요해졌다" 철수설 일축



아제이 칸왈(사진) 한국SC은행장은 한국이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에서 더욱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아제이 칸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이하 한국SC은행)은 29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장과 SC그룹 동북아시아 총괄본부 최고경영자(CEO)를 겸임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칸왈 행장은 SC그룹이 최근 그룹을 8개 지역본부 체제로 개편하면서 한국이 일본과 몽골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총괄본부로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한국SC은행장과 함께 SC그룹 동북아시아 총괄본부 CEO를 맡게 돼 영광"이라며 "한국이 동북아 총괄본부가 된 것은 앞으로 SC그룹 내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SC그룹에게 한국은 지난 5~6년 사이 4조7000억원이 투자된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며 "투자를 계속해 현재 400만명에 달하는 한국SC은행의 고객을 향후 600만명 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한국 철수설을 일축했다.

칸왈 행장의 발언은 SC그룹이 한국 시장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 일각에선 SC캐피탈, SC저축은행 매각 및 한국SC은행의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시장 철수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한국SC은행은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이란 위상에 걸맞게 한국기업들의 세계 진출을 위한 금융파트너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SC그룹이 가진 70여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세계시장에서 얻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커머셜 기업금융 총괄본부'를 신설해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자산관리 부문을 확대해 2016년까지 관련 분야 수익을 두 배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주목, 디지털뱅킹에 대한 투자를 늘려 올해 중 대출서비스까지 가능한 태블릿 뱅킹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태현 기자 holijjak@

DGB금융, KDB생명 인수전 참여

박인규 회장 "종합금융사 계획"
1조 이상 현금보유 독자인수 가능

매각을 위한 숏리스트에 외국계 자본만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던 KDB생명의 인수전에 DGB금융지주가 뛰어 들었다. 사실상 흥행 실패라고 평가받았던 KDB생명 인수전에 금융지주사가 참여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은 전날 공시를 통해 "KDB생명보험에 대한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DGB금융은 KDB생명 매각 숏리스트(인수적격후보)에 포함돼 6월 말까지 실사를 마치고 본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DGB금융이 KDB생명 인수전에 참여한 것은 비은행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DGB금융은 현재 대구은행, DGB캐피탈, 대구신용정보, DGB데이터시스템, 유페이먼트 등 5개의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당시 "올해 자산운용업에 진출할 계획이며, 보험사, 증권사 등을 갖춰 2017년까지 자산규모 80조원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DB생명은 현재 생보사중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유일한 매물이다. 마땅한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비은행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선 KDB생명을 인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KDB생명의 매각 대상은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와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보유한 지분 85%다. 기준가액은 주당액면가액 5000원으로 매각대상 지분 총액은 약 5200억원이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각가격이 6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GB금융은 1조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독자적인 인수도 가능하다.

DGB금융의 인수전 참여로 KDB생명도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은 생보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 중복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의 불안감도 줄어든다. 또 외국계 자본이 인수하는 것 보다는 영업 환경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의 경우 아무래도 외국계 자본이 인수에 향후 매각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보다 금융지주에서 인수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DGB금융이 금융권에서 직원들의 처우가 뒤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고객님, 본사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롯데카드 '고객체험단' 운영

롯데카드가 고객으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힘을 쏟고 있다.

보안과 소비자보호라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롯데카드는 고객이 직접 롯데카드 본사로 방문해 카드업무 프로세스의 보안과 안전성을 체험하는 '롯데카드 고객체험단'을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고객체험단은 고객이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고객정보보호의 안정성을 체감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카드는 최근 롯데카드 본사에서 고객체험단 1기 발대식을 갖고 △카드심사 및 발급 프로세스 △전산 보안체계 점검 △콜센터 고객정보처리 프로세스를 테마로 4~5월 두 달간 고객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체험단은 회사 건물 출입시부터 이뤄지는 출입증·보안게이트 등의 물리적 보안을 체험하고 테마별로 보안장치와 업무 프로세스,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체험·시연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 카드이용법·부정사용예방·금융사기예방 등 안전한 카드사용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이번 고객체험단에 참여한 한 고객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나니 우려했던 부분들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현대카드, 정보유출 반사이익 봤다

3사 영업정지에 카드론 이벤트
지난해보다 순이익 81.6% 급증

올해 1분기 결산 결과 현대카드가 눈에 띄게 선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1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올해 1분기 926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81.6%(416억원)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이 같은 실적 개선 배경에 대해 카드론에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등 비용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카드(신용판매와 카드대출을 합친 것) 부문에서 300여억원 가량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중 200여억원이 카드대출, 특히 카드론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객정보 유출로 카드 3사가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신규 카드론을 취급할 수 없게 되자, 현대카드가 반사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카드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월 신용도가 우수한 회원을 대상으로 9.5% 우대금리, 이자상환액의 최대 5% M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주는 카드론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는 지난해 7월 부터 '챕터2' 시리즈로 상품군을 단순화하면서 1인당 사용금액이 증가한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체크카드 시장의 영역이 커지자 현대카드가 성장성이 없는 신용판매 대신 마진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더존 Good,Better,Best IT그룹 DUZON

산업군별 대표기업도 다양한 강소기업도

ERP는 역시, 더존 ERP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모바일, 보안시스템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

단계별 ERP Line-up
확장형 ERP, 건설 ERP, 비영리법인용 ERP 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Line-up 보유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IFRS 연결·개별 솔루션, XBRL 솔루션,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보유

완벽한 통합 시스템
22년 ERP업력으로 산업군별 표준 프로세스, 특화서비스 보유 및 자체 확장솔루션(그룹웨어, MES, POP 등)을 통한 완벽한 통합시스템 구현

Blue Heart 더존 기업을 움직이는 푸른심장 | www.duzon.co.kr |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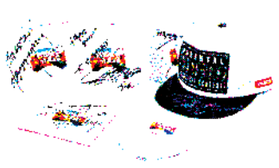


롯데백화점 구입 김수현 / 소녀시대
(Kim Soo-hyun / Girls' Generation)

나라사랑 大바자

· 5월 30일(금)~6월 8일(일), 전점 · 후원: 국가보훈처

수익금을 통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를 돕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함께하는 선열가족 돕기행사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인 박경수, 장형돈, 하하, 노홍철, 정준하(시인 모자·CD)



국가보훈처장 박승춘(화이트 골드 찻잔 세트)



민속공예가 문금택(자개장)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이원준(롯데자이언츠 이대호·강민호 유니폼)

나라사랑 기증물품 판매전

· 5월 30일(금)~6월 8일(일), 본점 집문 앞 · 기간 중 선착순 판매, 조기품절 가능 · 현금결제만 가능
본 기획행사에 고객님들의 소중한 애장품 기증을 바랍니다 (문의 : 02-2118-2948, 6/5까지)

나라사랑 기증자 현황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애장품을 기증해 주신 각계각층의 명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김을동, 김종태, 김재윤, 김종훈, 하태경, 윤상현, 김정훈, **민홍철** **국가보훈처** 박승춘(처장)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왕성원(회장), 조정식(부회장), 이미자(부회장), 강정자(사무총장)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최해근(회장), 염상희(부회장), 박승호(서울시지부장), 김영수(경기도지부장), 이기호(인천시지부장) **서울지방보훈청** 안중현(청장) **방송인** 최불암, 심양홍, **박명수**, **정형돈** 하하, 노홍철, 정준하, 전영록, 김경호, **태진아**, 박상민, 박현빈, 장윤정, 추가열 **롯데백화점모델** 소녀시대, **김수현** **일반인** 문금택, 김혁신, **김예술**, 김해랑, 이우경, **박혜미**, 연효성, 윤소윤, 문지희 최혜지, 이현정, 박준영, 이상하, 김은지, 유근청, 이상혁, 조경민, 김태연, **김민지**, **김송희** 그 외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바자 특보 상품전

· 5월 30일(금)~6월 3일(화)
· 입점 전점(점별 브랜드 및 수량 상이)

SOUP 원피스 39,000원 **스톤헨지** 실버 세트 80,000원
요하넥스/지이크 재킷 50,000/120,000원 **컨버스** 슈즈 30,000원

롯데백화점이 제작한 나라사랑 주제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100人의 영웅들」 공개!

· 작사/작곡/노래: 방송인 박경수 · 5월 30일(금)부터 국내 全 음원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음원 다운로드 수익금은 선열가족 돕기에 전액 기부됩니다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6월 13일(금) 예정됐던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오픈이 외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리며, 철저한 준비로 빠른 시일 내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NAVER 롯데백화점

백화점 서울 및 수도권 전점 5월 30일(금)~6월 1일(일) 8시 30분까지 | 6월 2일(월) 정상영업 아울렛 6월 2일(월) 정상영업

롯데백화점

삼성 '소재 3총사' 연구개발 담금질

〈삼성SDI·제일모직·삼성정밀화학〉

올 1분기 R&D 투자액 1699억원 꾸준한 증가세
삼성SDI·제일모직 내달 합병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원에 계열사 4곳 R&D센터… '시너지 효과' 기대

삼성그룹의 소재 부문 계열사들이 연구개발(R&D)을 통한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의 대표적 소재 기업인 삼성SDI, 제일모직, 삼성정밀화학 등 계열사 3곳은 매년 R&D 비용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해 스마트폰이나 TV 등 완제품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재 분야를 미래 수익기반으로 성장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의 소재 부문은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경쟁업체인 LG화학보다 다소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소재 부문 계열사 3곳은 올 1분기 R&D에 1699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631억원)와 비교할 때 4.2%(68억원) 늘어난 액수다. 3개사는 단순히 R&D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매출액 대비 점점 더 많은 비중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적극적인 R&D를 통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삼성SDI는 R&D 비중(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약 10%에 달한다. 삼성SDI의 R&D 비중은 지난 2011년 4.13%에서 2012년 5.67%, 지난해 8.54%, 올 1분기 9.95%로 꾸준히 늘며, 약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삼성 소재 부문 계열사 R&D 투자액 및 비중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분기
삼성SDI	R&D 투자액	2250억원	3269억원	4285억원	1129억원
	R&D 비중	4.13%	5.67%	8.54%	9.95%
제일모직	R&D 투자액	1438억원	1611억원	1690억원	488억원
	R&D 비중	2.58%	2.68%	3.95%	4.66%
삼성정밀화학	R&D 투자액	256억원	296억원	366억원	82억원
	R&D 비중	1.90%	2.10%	2.80%	2.80%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R&D 비중: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제일모직도 R&D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제일모직의 R&D 비중은 2.58%에서 4.66%까지 증가했다. 삼성정밀화학 역시 2011년 1.9%에 머물렀던 R&D 비중이 올 1분기 2.8%까지 높아졌다.

특히 삼성SDI와 제일모직은 오는 7월 1일 합병을 통해 소재부터 부품 및 시스템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소재 부문 계열사 간 R&D 시너지 창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제일모직, 삼성정밀화학 등 4개 계열사의 소재 분야 R&D센터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맞은 편에 위치한 '삼성 전자소재 연구단지'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흩어져 있는 R&D 인력과 연구 역량을 모아 R&D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각 계열사의 R&D 인력은 함께 연구하고, 특허 및 연구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핵심 소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gutjy@

현대차 야심작 'AG' 스펙은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간 사양
4000만원대 가격… 9월 양산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AG(프로젝트명)'가 4000만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이르면 9월 양산에 돌입한다.

현대차는 지난 29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2014 부산국제모터쇼'에 AG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AG는 고급차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적극 담아 탄생한 결과물"이라며 "AG는 그랜저와 제네시스와 함께 (수입차 공세에 맞서) 고급차 시장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AG는 그랜저와 제네시스의 중간급 모델로 전륜 구동 방식의 플래그십 세단 모델이다. 높이나 폭은 그랜저와 같지만, 길이가 그랜저보다 50mm 길고 제네시스보다는 30mm 짧다. 엔진도 그랜저보다 큰 3.0ℓ나 3.3ℓ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다.

현대차는 그랜저보다는 높고 제네시스보다는 낮은 파워트레인을 AG에 장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단 파워트레인 장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역시 3000만원대 그랜저와 5000만원대 제네시스의 사이인 4000만원대 중반대로 결정된다.

이날 곽진 현대차 부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G는 4000만원 초중반대의 가격으로 올 9월 이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며 "AG는 경쟁차종인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현대차가 AG를 출시하는 이유는 세그먼트를 세분화하고 강화해 수입차로 이탈하는 고객을 되찾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상대 현대차 국내마케팅 실장은 "그랜저와 제네시스의 가격 격차가 커서 수입차로 일부 고객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AG를 통한 다양한 라인업으로 국내시장에서 커지는 대형 세단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급스러운 안락함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꾸준히 있었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롯데월드 선양' 조감도.

중국 선양시에 초대형 '롯데타운'

3조원 투자… 계열사 7곳 참여
호텔·쇼핑몰 등 연면적 116만㎡

롯데그룹이 3조원을 투자해 계열사 7곳이 참여하는 초대형 '롯데타운'을 만든다.

롯데백화점은 31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중국 5호점인 선양점을 연다. 롯데백화점 해외 7호점인 선양점은 롯데그룹 계열사 7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롯데월드 선양' 1단계 점포다.

랴오닝성 성도인 선양시는 서울의 약 21배 크기에 인구가 820만명에 달하는 중국 동북 3성 최대 도시다. 하얼빈 530만명, 다롄 670만명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다. 1인당 GDP도 지난해 기준 1만4180달러로, 중국 동북지역에서 가장 높다.

'롯데월드 선양'은 롯데그룹의 중국 내 첫번째 복합 프로젝트로, 총 투자비는 중국 최대 규모인 약 3조원에 달한다. 우선 영플라자를 포함한 백화점과 시네마가 오픈하고 2015년에는 마트가, 2016년에는 쇼핑몰과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마지막으로 2017년까지 호텔, 오피스, 아파트가 들어서면 '중국판 롯데타운'이 완성돼 연면적 116만㎡ 단지를 이루게 된다.

롯데백화점 선양점은 텐진, 웨이하이, 청두 등지에 오픈한 기존 점포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다. 롯데월드선양 단지 내 지하 1층~지상 7층에 연면적 12만2000㎡, 매장면적 7만3000㎡로 개장하며, 입점 브랜드수도 420여개로 가장 많다.

선양점 영플라자는 1층~3층까지 유니클로·QDA 등 글로벌 SPA 브랜드를 비롯한 영패션 브랜드로 구성됐다. 티니위니·베이직하우스 등 중국에서 유독 인기가 높은 국내 브랜드가 입점하며, 삼성 IT 전문관이 1층에 입점한다. 4층~7층에는 선양지역 최대규모인 16관, 3000석 롯데시네마가 들어선다.

백화점 본관 역시 젊은 층을 공략하는 한편, 국내 인기브랜드를 MD 구성에 적극 활용했다. 상권 내 최대 백화점인 탁전백화점 대비 두 배 수준 매장을 영패션 브랜드로 채웠고, MCM·오즈세컨 등 40여개 국내 브랜드를 입점시켰다. 특히 더페이스샵·스킨푸드 등 중가 화장품 브랜드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와 나란히 경쟁하고,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들의 필수 쇼핑품목으로 여겨지는 쿠쿠를 들였다.

이다람 기자 zing@



"그린윙스 선수단 파이팅" 진에어 '래핑 항공기' 공개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는 이달 29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격납고에서 진에어 그린윙스 프로게임단의 선전을 응원하는 래핑(Wrapping) 항공기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현민 진에어 마케팅본부장(둘째 줄 오른쪽 8번째)과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등이 진에어 그린윙스 선수 및 코칭 스태프와 함께 래핑 항공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진에어

한국, UHD TV 패널 시장 첫 선두

4월 시장점유율 46.3% 1위
대만 2.4%포인트 차로 제쳐
LG디스플레이 약진 힘입어

UHD TV 패널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대만을 추월했다. 지난 2012년 OLED TV 시장이 열린 이후 처음이다.

30일 시장조사업체인 디스플레이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출하량 기준 세계 UHD TV 패널 4월 시장점유율에서 한국이 46.3%로 대만(43.9%)을 2.4%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중국(8.4%), 일본(1.5%)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만 해도 한국 점유율은 16.9%로 대만(70.3%)에 한참 뒤쳐졌다. 이후 2월 19.6%포인트(한국 33.2%, 대만 52.8%), 3월 9.3%포인트(한국 40.3%, 대만 49.6%)로 격차를 줄여왔다.

이번 한국의 점유율 성장은 LG디스플레이의 약진에 힘입었다. LG디스플레이의 UHD 패널 출하량은 지난해 12월 2만6000대에서, 올 4월 30만8000대로 급증했다. 점유율은 6.5%에서 22.9%로 뛰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월부터 점유율이 20%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UHD 패널 출하량은 작년 12월 5만9000대에서 4월 31만5000대로 증가했다.

업체별 UHD TV 패널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대만 이노룩스가 35.0%로 1위를 지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3.4%로 2위, LG디스플레이가 22.9%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대만 AU옵트로닉스(AUO)가 8.9%로 4위, 중국 차이나스타(CSOT)가 8.2%로 5위에 올랐다. 일본 샤프는 1.5%로 6위에 그쳤다.

한편, 4월 UHD TV 패널 출하량은 134만7000대로 전달(106만대)보다 27% 증가했다. 디스플레이서치는 올해 연간 UHD TV 패널 출하량을 지난해(307만9000대)의 7배 이상으로 늘어난 2201만7000대로 전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올 태블릿 국내 판매 41만대 목표"

인텔코리아 '스마트러닝' 정조준



인텔코리아가 스마트러닝 시장을 겨냥해 국내 태블릿 공략을 본격화한다.

인텔코리아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교육 전용 태블릿 2종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인텔 에듀케이션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번에 인텔코리아가 선보인 태블릿은 10인치 대화면으로 교육 전용 기기에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 국내에는 안드로이드 4.2(젤리빈) 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델이 출시됐으며, 인텔코리아는 향후 시장 수요가 있을 경우 윈도 기반 모델도 공급할 계획이다.

인텔코리아는 오는 7월 신제품 본격 출시와 함께 협력사인 '아이아이랑'이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과 연계해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텔코리아는 아이아이랑에 태블릿 디바이스를, 아이아이랑은 인텔코리아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일반 교육 업체들은 이디스토어에 자사에서 만든 교육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인텔코리아 이희성〈사진〉 사장은 "올해 인텔이 목표하고 있는 전 세계 태블릿 판매 목표는 4000만대"라며 "인텔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41만4000대 판매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교육용 태블릿은 최대 10만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이 같은 교육 플랫폼이 공교육에도 도입되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태블릿은 일반 소비자를 위해 프리미엄급으로 비싸게 나왔다면, 이번 인텔코리아 태블릿은 디자인, 가격 측면에서 모두 교육만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지희 기자 jhsseo@

SK하이닉스, 美 바이올린메모리 PCIe 카드 부문 인수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솔루션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바이올린메모리의 PCIe 카드 사업 부문 인수에 관한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해당 PCIe 카드 사업부의 자산, 인력 및 관련 특허 등을 일괄 흡수하게 되며 다음달 말 인수를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바이올린메모리는 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설립된 플래시 솔루션 전문회사로, PCIe 카드 사업부엔 30여명이 근무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낸드플래시 기반 SSD(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분야의 기술력을 더욱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012년 스토리지 컨트롤러 업체 'LAMD(현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스)'를 인수하고 경기도 분당에 '플래시 솔루션 디자인 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대만에 '플래시 솔루션스 타이완'과 KAIST 내에 '스토리지 미디어 솔루션스 센터'을 각각 설립하는 등 고부가가치 낸드플래시 솔루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낸드플래시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 확보를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확보한 우수 기술인력을 활용해 향후 고성능 서버 수요 증가에 따른 낸드플래시 기반 스토리지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효진 기자 js62@

PCIe
디지털기기의 메인보드에서 사용되는 직렬 구조의 고속 입출력 인터페이스. 기존 SATA 방식이 초당 500MB 가량의 전송 속도를 구현하는 것과 달리 PCIe는 16배 빠른 8GB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기간 10~30% 단축"

국세청은 올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년 대비 10~30% 단축하기로 했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실제 연간 조사 건수는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불안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내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조사 기간도 예년 대비 10~30%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는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PA는 납세의무자가 앞으로 외국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하려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해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는 제도다.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 가격을 적용한 경우 이전가격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게 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1분에 1억" 스타 쇼호스트 모셔라

홈쇼핑업계 쇼핑호스트 영입 붐

GS샵 간판이었던 정윤정씨 임원급 대우 롯데홈쇼핑 옮겨

GS샵은 CJ오쇼핑 동지현 영입 CJ는 3년 만에 쇼호스트 공채

현대홈, 김동은·심용수 유명세 쇼호스트 신뢰도 매출·실적 좌우


롯데홈쇼핑 정윤정 쇼호스트


GS샵 동지현 쇼호스트


CJ오쇼핑 임세영 쇼호스트

스타 쇼핑호스트 전쟁이 뜨겁다. 경쟁사 인기 쇼호스트를 서로 영입하면서 홈쇼핑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GS홈쇼핑 공채 쇼호스트로 업계에 발을 들였던 정윤정씨는 올해 초 롯데홈쇼핑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후 2012년 1600억원, 지난해 2400억원의 매출을 올려 '1분에 1억원을 파는 여자'로 불린다.

롯데홈쇼핑은 임원급 대우로 영입한 정 쇼호스트에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 역할을 부여했다. 정윤정 마스터는 방송진행뿐 아니라 상품기획, 선정, 제조과정 등 상품 전반에 걸친 총 책임을 맡게 된다.

올해 초 그만둔 유난희씨와 함께, 간판 쇼호스트가 자리를 비운 GS샵은 CJ오쇼핑에서 동지현 쇼호스트를 영입했다. 다음달부터 간판 패션 프로그램 '쇼미더 트렌드 뉴시즌'을 진행하게 된 동 쇼호스트는 항공사 승무원 생활을 접고 지난 2000년 쇼핑호스트로 전직한 후 패션·속옷·화장품을 전문으로 하는 CJ오쇼핑 간판으로 활동해왔다. CJ오쇼핑에서 진행한 지난 10월 핸드백 판매 방송에서 분당 최고 주문금액 1억원을 넘는 진기록을 세우는 등 작년 한해 동안 판매한 상품이 2400억원어치에 달한다.

GS샵은 동지현 쇼호스트 외에도 이창우·권미란 부부 쇼호스트도 보유하고 있다. 쇼핑호스트팀 이창우 부장은 GS샵 잡화MD를 맡다가 쇼핑호스트로 직종을 전환했다. 권미란 쇼호스트는 2001년부터 CJ오쇼핑에서 방송을 진행하다가 이번달부터 남편과 같은 회사에 몸 담게 됐다.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맨 얼굴 방송'으로 유명한 권 쇼호스트는 업계 최고 수준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

CJ오쇼핑은 동지현, 권미란 쇼호스트가 이직했지만 여전히 임세영, 김민향, 한창서, 류재영 쇼호스트 등 쟁쟁한 라인업을 갖고 있다. '패션 잭팟타임'을 진행하는 임세영 쇼호스트, 'Celebshop'과 '조희선의 홈스토리'를 맡고 있는 류재영 쇼호스트는 지난해 각각 2300억원과 4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CJ오쇼핑은 이달 말 3년 만의 쇼호스트 공채 공고를 내며 부문별 전문 쇼호스트 육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29일 접수 마감까지 1000명이 몰린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현대홈쇼핑에서는 김동은 쇼호스트가 첫 손에 꼽힌다. 2002년 현대홈쇼핑 공채로 입사한 그는 패션·미용 상품을 전담하며 지난해에만 1863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홈쇼핑 해외 명품 잡화 판매 방송 '클럽 노블레스', 토크쇼 형식 '트렌드톡' 진행을 맡고 있다.

현대홈쇼핑 쇼호스트 실장을 맡고 있는 장영재 쇼호스트는 전직 아나운서 출신이다. 핸드폰·금융·컴퓨터·청소기·안마기 등을 주로 소개하며 방송 회당 평균 매출 실적이 10억원에 달한다.

심용수 쇼호스트는 올해 초 홈쇼핑 최초로 선보인 애견사료 방송에서 사료를 직접 먹어 화제가 됐다. 그는 "가족 같은 애완견이 먹는 제품인 만큼, 사람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심용수 쇼호스트는 이날 1시간 동안 2억5000만원어치의 애견사료를 팔아치웠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브랜드와 상품도 중요하지만, 쇼호스트가 누구냐에 따라 실제 매출이 많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홈쇼핑업 특성상 스타 쇼호스트를 영입하고 키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다람 기자 zing@

월드컵 특수? 맥주업계 '절레절레'

한국 경기시간 새벽 4·5·7시

사건·사고에 '조용한 응원'

신제품 내놓은 업계 '울상'

맥주업계가 6월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월드컵 마케팅'을 시작했다. 그러나 예전 같은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기는 힘든 분위기다.

지난달 21일 '클라우드'를 출시하며 맥주시장에 진출한 롯데주류는 최근 TV광고 마케팅을 개시했다. 앞서 롯데주류는 톱스타 전지현을 모델로 기용하며, 수백억원대 광고·홍보비를 책정해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준비했지만 세월호 참사에 모두 중단해야만 했다. 회사 관계자는 "롯데의 첫 맥주라서 기대도 아쉬움도 모두 컸다"면서 "6월을 기점으로 조심스럽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맥주시장의 양대 산맥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롯데주류에 맞서 각각 리뉴얼 신제품과 에일맥주를 출시했지만, 그간 제대로 된 마케팅을 시도하지 못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3일 20년 만에 주력 브랜드인 하이트 맥주를 제조공정까지 바꿔 신제품 수준으로 탄생한 '뉴 하이트(New hite)'를 선보였다. 같은 시기 오비맥주도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정통 영국식 에일맥주 '에일스톤'을 출시했다. 오비맥주는 월드컵과 여름을 겨냥해 곧 전국 대형 할인마트에서 카스와 에일스톤 등 브랜드 무료 시음행사 등의 판촉활동을 시작한다.


롯데주류 '클라우드'

하이트진로도 6월 월드컵을 전후로 신제품 뉴 하이트를 본격 홍보할 방침이다. 배우 현빈을 내세운 TV광고도 최근 내보내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이미지와 월드컵 이미지를 차용한 광고들만 내보내는 등 업계가 여름 특수와 브라질 월드컵을 위한 마케팅을 조심스럽게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월드컵 특수는 예전 같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대표팀 첫 3경기 시작 시간이 오전 4시, 5시, 7시로 새벽과 아침에 몰려 있다. 더욱이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조용한 응원'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월드컵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지만, 올해는 경기 시간대도 따라주지 않았다"면서 "4년 만에 오는 대목을 잡지 못해 업계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인 제약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가 기다리던 슈퍼항생제 글로벌 임상시험 3상 성공적 완료

이 작은 나라에는
세계가 열광하는 음악이 있고
세계의 기준이 된 기술이 있고
세계가 사랑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제약회사는 아직 없기에
동아제약이 새롭게 도전합니다

세계가 기다리던 슈퍼항생제 개발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술력을 더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

전문의약품 부문 동아ST와
일반의약품 부문 동아제약을 분리,
동아쏘시오의 이름아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국민 여러분의 80년 성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를 향하여!

이제 우리의 시장은 세계입니다



전문화된 글로벌 경영 체제 전환

동아쏘시오그룹



패션 블로거 '제시의 방'(왼쪽)은 17㎡ 원룸 수납을 주제로 침대와 옷장을 배치하고, LP판 수집을 즐기는 아빠 '헨리의 방'은 13㎡ 크기에 수납장과 선반으로 서재를 꾸몄다.

이케아 두번째 체험관 '헤이홈! 마이홈!' 가보니

아이 있는 가족 타깃… 스토리룸 제안

거실·침실 등 실제 집 그대로 옮겨

아동용 가구 등 20여제품 가격 공개

"병행수입보다 저렴한 가격 선보일 것"

가로수길에 이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두 번째로 오픈한 이케아코리아의 체험관인 '헤이홈! 마이홈'은 거실, 침실, 서재 등 실제 집을 그대로 옮긴 모습이었다.

패션 블로거 '제시의 방'은 17㎡ 원룸 수납을 주제로 침대와 옷장을 배치하고, LP판 수집을 즐기는 아빠 '헨리의 방'은 13㎡ 크기에 수납장과 선반으로 서재를 꾸몄다. 거실공간은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러그를 깔고, 수납장 위에 패브릭을 덮어 스툴로 활용했다.

울프 스메드버그 이케아코리아 마케팅 매니저는 "첫 번째 '헤이홈!'이 이케아가 한국 고객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기소개 자리였다면, 두 번째 '헤이홈!'은 이케아의 다양한 홈퍼니싱 솔루션을 어떻게 각자의 집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영감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세실리아 요한슨 이케아코리아 광명점장은 "연내 오픈할 광명점에서는 가구 및 소품 등 1만여개의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광명점에도 60여개의 스토리룸을 만들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이케아코리아는 두 번째 '헤이홈!'에서 아동용 가구와 소품 등 20여개 제품의 가격을 국내 첫 공개했다. 캐노피 1만2900원, 의자 3만원, 벤치 겸용 수납함 5만원, 사이드테이블 2만9000원, 인형 1만9900원 등으로 해외 구입 가격대와 비슷했다. 패트릭 슈루프 이케아코리아 프로젝트 매니저는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병행수입 제품들이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광명점이 문을 열면 그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최고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두 번째 '헤이홈!'은 다음달 22일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 2층에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린다. 개장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다.

'헤이홈!'에서는 이케아 멤버십 프로그램 '이케아 패밀리' 가입 신청도 받는다. 이케아 패밀리 멤버는 한국어 카탈로그를 받아볼 수 있고, 패밀리데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매장 오픈 후에도 200개 이상의 이케아 제품을 이케아 패밀리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무료 커피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다람 기자 zing@

무거운 카드지갑 대신 '전자 지갑' 다운

은행·카드사는 결제…통신사는 멤버십 쿠폰 초점
카카오, '뱅크 월렛 카카오' 올 하반기 출시 예정
스마트폰 가입자 4000만명…'주머니 차지' 경쟁

#황정미(33)씨는 더 이상 카드가 여럿 담긴 '카드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황씨는 그간 각종 멤버십과 할인카드, 신용카드 등 수십 장을 모아둔 카드용 지갑을 항상 챙겨다녔지만, 번거로운데다 분실의 위험까지 있어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황씨는 최근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이다. 그는 신용카드와 멤버십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버스를 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카카오가 올 하반기 전자지갑인 '뱅크 월렛 카카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4000만명의 '사이버 주머니'를 차지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30일 IT·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자지갑 시장은 통신사와 은행·카드사의 2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중 금융거래 기능과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앞세워 고객들을 선점하고 있는 곳은 은행과 카드사다. 이들 기업은 자신들의 오프라인 영업전략을 모바일에 그대로 옮겨왔다.

모바일 쇼핑족들을 잡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앱카드'를 내놨고, 카카오톡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금융서비스 제휴를 맺으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들은 멤버십과 쿠폰 기능에 초점을 맞춘 비금융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대부분에 들어있는 유심칩을 이용한 전자결제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먼저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한 스마트월렛'을 출시했다. 지난 연말까지 65만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국민카드도 'KB 와이즈 월렛'이라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용자는 지난 해 말 기준 35만명 가량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삼성카드도 'm포켓'라는 서비스를 내놨고, 비씨카드도 '비씨 월렛'을 선보였다.

금융권이 결제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동통신사들은 멤버십 카드 위주의 서비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SK플래닛의 '스마트월렛', KT의 '모카월렛', LG유플러스 '스마트월렛' 등이다.

SK플래닛의 스마트월렛은 OK캐쉬백, 해피포인트, CJ ONE, 롯데멤버스, GS&POINT 등 국내 350여개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쇼핑·레저·외식·항공·뷰티·공연예술 등 고객이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의 멤버십을 확보하고 있다.

모카(MoCa)는 멤버십카드, 결제, 상품권, 쿠폰 등의 관리와 이용을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로, '머니(Money)'와 '카드(Card)'의 합성어다. olleh club, 롯데멤버스, 아시아나항공, CJ ONE, 해피포인트, GS&POINT 등 다양한 멤버십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스마트월렛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멤버십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할인이나 적립, 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신사에 관계없이 구글플레이 스토어나 U+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U+멤버십 뿐 아니라 롯데멤버스, GS&POINT 등 다양한 멤버십 카드를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앱으로 이용 가능하다.

김태헌 기자 119@



글로벌 보안·안전 업체 한곳에 '시큐리티 세이프티코리아2014'

글로벌 보안·안전 업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시큐리티 세이프티코리아2014'가 28일 개막, 30일까지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테크윈·캐논코리아·월드휴먼텍·에이원티에스·가드텍·플리어시스템·케다콤·아이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120여개 관, 250여부스 규모로 참가해 최첨단 보안 시스템들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LTE 1000배 빠른 5G망 구축"

하성민 SKT 사장 "2018년 평창 올림픽서 첫선"



하성민〈사진〉 SK텔레콤 사장이 지금 LTE보다 1000배 빠른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하 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30년, 향후 30년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이고 2020년 세계 최초 5G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한계를 극복을 위해 미래 30년 핵심전략으로 'ICT노믹스(ICT + Economics)'를 제시한 하 사장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첫 번째로 달성해야 할 과제로 5G망 구축을 꼽은 것이다.

ICT노믹스는 모든 사물과 사람이 좀 더 확대된 인공지능 적용 범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 받는 경제개념이다. 2020년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수가 세계적으로 5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CT가 생산과 소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의 촉매재로 작용하는 새로운 형태라는 뜻이다. 하 사장은 "지난 30여년간 석탄과 철을 지배하는 국가가 산업을 주도했다면, 미래에는 ICT 기술을 가진 국가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ICT노믹스의 구체적인 핵심 4대 트렌드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 기술을 꼽았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물과 사람이 연결돼 정보를 주고 받는 IoT와 방대한 정보로 모든 현상을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야 발전을 위해 5G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SK텔레콤은 이미 외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한 상태다.

하 사장은 이날 '빠른' 변화와 함께 '바른' 변화도 거듭 강조했다. 과거 30년 동안 빠른 속도만 추구해왔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ICT노믹스 시대에는 지금까지 이동통신 속도에만 매몰돼 놓치고 있었던 변화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 더욱 중요하다"며 "빠른 변화를 넘어선 '바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SK텔레콤의 새로운 성장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황창규 KT 회장, 조용한 창립기념일

이석채 前 회장 KT·KTF 합병일 새 창립일로…의미 퇴색



KT가 올해도 창립기념일(6월1일)을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보낼 예정이다. 이 날은 KT가 33번째 맞는 생일로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맞는 창립일이기도 하다.

KT가 설립 초기부터 창립기념일을 행사도 치르지 않는 '휴일'로 보낸 것은 아니다. 창립기념일 기념행사가 없어지고 창사에 대한 의미마저 임직원들 뇌리에서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창립기념일이 바뀐 2010년부터다.

당초 KT의 창립기념일은 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된 12월10일이었다. 1981년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001년 12월 지금의 상호로 변경됐고 2002년 8월 민영화 기업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후 2009년 1월 KT 회장으로 취임한 이석채 회장은 같은 해 6월1일 KT-KTF를 합병시키며 통합 KT를 출범시켰다. 이 전회장이 KTF와의 합병에 큰 의미를 두면서, 이듬해인 2010년부터 창립기념일을 합병일인 6월1일로 바꾼 것이다.

이때부터 창립기념일에 대한 의미가 더욱 퇴색됐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다. 상당수 임직원들이 KT 모태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과 날짜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T는 창립 30주년이었던 2011년도 그냥 지나갔다.

결과적으로 이석채 전 회장의 흔적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KT가 새로운 회장의 경영스타일로 물들어가는 과정에서 창립기념일에 대한 큰 의미 부여는 여전히 없는 셈이다. 이석채 회장 시절의 정책 중 계승할 것은 그대로 가겠다고 선언한 황창규 회장이 이를 이어받아 당분간은 조용히 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韓·日 중기 협력 늘려 세계시장 개척해야"

제1회 한일 중소기업 정책포럼

한·일 중소기업계가 양국간 중소기업 정책 공유와 산업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한일 중소기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한·일 중소기업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에 이어 양국 중앙회가 준비해온 행사로, 민간차원에서 소통과 협력의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양국이 직면한 경제적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의 경험과 위기극복의 저력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책포럼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과 현안이슈를 공유하고, 업종별 단체·기업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쓰루타 킨야 일본 중기중앙회장도 "동북아 중요 국가로 주목받는 한국 중소기업 관계자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양국 협력체제 구축의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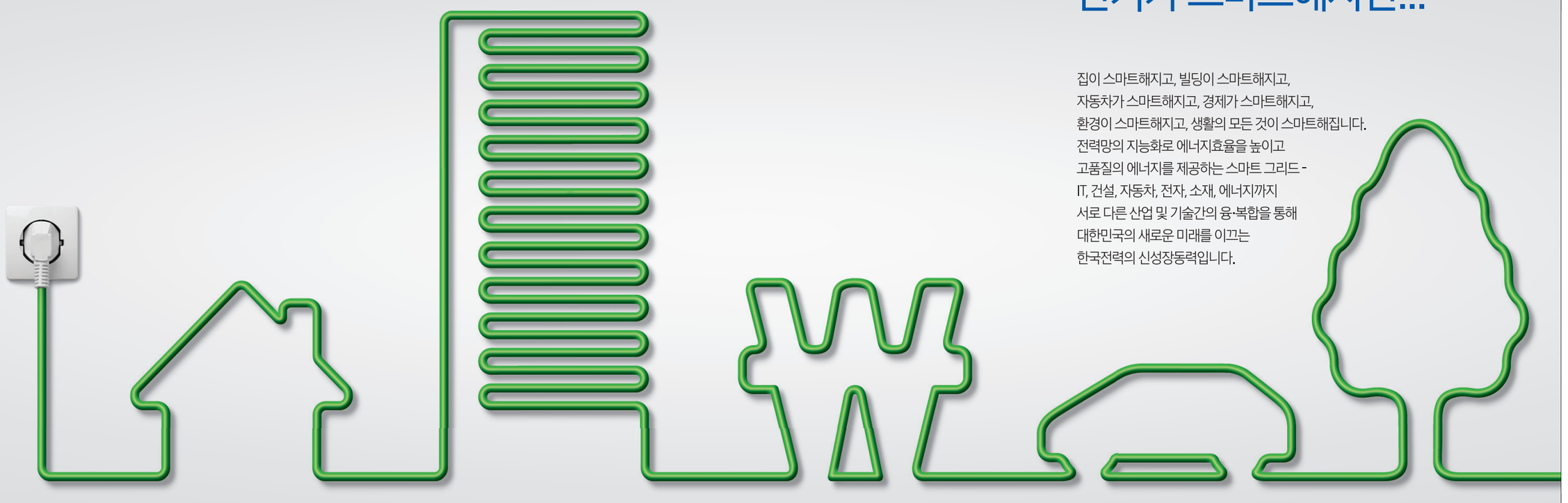
이어진 발제에서는 일본 중소기업청 마츠나가 사업환경부장, 한국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부원장, 산업연구원 사공목 연구위원이 각자 양국 중소기업 정책과 양국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도 숙명여대 이형오 교수가 양국 중소기업 단체간 교류 활성화, 공동마케팅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www.kepco.co.kr

전기가 스마트해지면...

집이 스마트해지고, 빌딩이 스마트해지고,
자동차가 스마트해지고, 경제가 스마트해지고,
환경이 스마트해지고, 생활의 모든 것이 스마트해집니다.
전력망의 지능화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고품질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스마트 그리드 -
IT, 건설, 자동차, 전자, 소재, 에너지까지
서로 다른 산업 및 기술간의 융·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한국전력의 신성장동력입니다.



한국전력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4-2-357호(2014.5.16현재)

신한의 힘이 탄생시킨
은퇴전용솔루션



신한이 지켜주고 키워주는 은퇴생활비 전용통장
신한미래설계통장 출시

은퇴생활비는 은퇴전용통장에 모아야 미래가 든든해집니다
여러 통장에 흩어져 있는 은퇴자금, 신한미래설계통장에 모아 제대로 관리 받으세요
행복한 美來를 위한 은퇴파트너, 신한미래설계

은퇴생활비모음우대
은퇴생활비를 한 곳에 모으면
다양한 금융혜택이 따라옵니다

미래설계카드
은퇴 후 꼭 필요한 혜택과 포인트
사용이 쉬운 전용카드를 드립니다

생활비가불서비스
일시적으로 지출이 많아졌을 때
생활비에 도움을 드립니다

절대안심서비스
심각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은퇴생활비를 지켜드립니다

신한 미래 설계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험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은행은 다른 그룹사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브랜드 대한민국 1위, 세계 43위 The Banker誌 선정 |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PB EUROMONEY誌 선정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대한민국 1위, 세계 30위 다보스 포럼 발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英 마약·매춘 GDP 포함…年17조원 증가

〈5%〉

EU 내 합법화한 일부 국가들과 산정 기준 통일
실제경제 파악에 도움…"정확한 집계 쉽지 않아"

영국이 마약 매매와 매춘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 통계청(ONS)은 이날 "오는 9월 GDP 계정 개정에 마약과 매춘 관련 수입도 들어간다"며 "이는 연간 GDP를 약 100억 파운드(약 17조원)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영국 전체 GDP가 5% 증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과 매춘을 GDP 계정에 포함시킨 것은 유럽연합(EU) 내 다른 나라와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이미 매춘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됐으며 GDP 집계에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청도 지난주 코카인 판매와 매춘 수입 등을 집계한다고 발표했다.

에스토니아와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미국 GDP 통계에도 부분적으로 매춘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네바다주에서는 일부 매춘이 합법화돼 있기 때문이다.

ONS는 또 이날 처음으로 과거 마약과 매춘 수입을 추산한 통계치를 내놓기도 했다. ONS에 따르면 새 기준을 적용해 2009년 GDP를 다시 계산하면 매춘은 53억 파운드, 마약은 44억 파운드씩 GDP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ONS는 2009년 이후 자료는 아직 관련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새 GDP 계정 기준에는 자선재단 등 가계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들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09년 기준으로 GDP가 240억 파운드(1.7%) 늘어나게 된다. 사람들이 스스로 집을 짓는 것도 집계에 포함되는 데 이는 2009년 GDP의 0.3%에 해당하는 40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ONS는 설명했다.

ONS의 조 그라이스 수석 경제자문은 "경제가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이를 측정하는 방식이 따라 변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런 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영국 경제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음성적인 마약과 매춘수입을 정확히 집계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ONS도 이를 인정했다.

그 예로 ONS도 이번에 매춘 수입을 산출했을 때 매우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했다. ONS는 먼저 지난 2004년 런던에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영국 전역으로 확대해 매춘부 수를 산출하고 다시 매춘부 당 고객 수와 이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을 추정했다. 이어 매춘부 수가 영국 16세 이상 남성 증가폭과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했다.

ONS는 이런 분석 과정이 취약점을 갖고 있지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국서 뜨는 산업 ④ DIY산업

21세기 유망한 산업인 'DIY(Do It Yourself, 스스로 만들기)'가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에서 처음 DIY가 출현한 부문은 PC산업이다. 이후 소비 수요가 다양화돼 가구 인테리어·가전제품 등에서도 DIY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선물을 주기 위해 중국인들이 직접 물품을 만들고 있다.
출처 중국 신화통신

절약·개성 '1석2조' 효과
젊은층 중심 소비 확산

가전제품·인테리어 활발
구매자 30세 이하 60%
유통·물류 등 시스템
아직 초기단계 머물러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절약'이 중요 소비 포인트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단순히 기존 가구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하거나 전문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기기보다는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다. 또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개성적이면서 실용적으로 집을 가꿀 수 있다는 점도 DIY가 인기를 얻게 된 원인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창의적이면서 의미있는 선물을 주기 위해 DIY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중국은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 등 특별한 날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발달했으나 선물의 선택 폭이 좁아 술이나 담배 등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성상품에 만족하지 못한 젊은 소비자들이 DIY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DIY 공구 등 관련 상품 인터넷결제 소비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30세 이하 온라인 구매자 비율이 60%로 나타나 소비 주축이 젊은 소비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아직 DIY산업 발전 초기단계에 있어 유통과 물류 등 아직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라며 "또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미 완성된 DIY 제품 구매를 선호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현지화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개성과 실속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면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텅쉰재경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5~21세의 응답자는 DIY 지출에 30~100위안(약 5000~1만6000원), 21~30세는 50~100위안 정도를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텅쉰은 연령대와 해당 고객의 수입 정도 등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한 뒤에 DIY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美 식품업계 힐셔이어 인수 '군침'



1분기 혹한 여파
美 마이너스 성장

-1.0% 기록… 3년 만에 처음
고용·소비 개선…2분기 맑음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했다. 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선데다 투자를 줄인 영향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치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잠정치 0.1% 성장에서 대폭 하향된 것으로 월가 전망치 마이너스 0.5%에 비해 위축 폭이 2배 이상 늘었다.

미국 경제가 위축한 것은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지표 악화에도 미국 경제의 성장이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분기 지표에 올초 혹한의 영향이 컸던데다 최근 제조업 지표와 고용시장의 회복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샘 코핀 UBS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있으며 고용시장 개선과 함께 가계의 상황 역시 개선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니블록 로우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고용과 소득, 소비지출이 최근 살아나고 있다"면서 "5월에 이미 상황은 개선됐으며 거시경제와 소비심리를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가는 2분기 미국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1.9%, 2012년에는 2.8% 성장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미국 식품업계에서 힐셔이어브랜드 쟁탈전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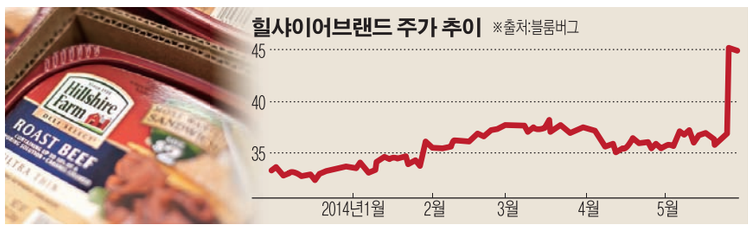
미국 2대 돈육업체 타이슨푸드가 힐셔이어브랜드 인수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타이슨이 힐셔이어에 제시한 인수가는 주당 50달러로 총 68억 달러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불과 이틀 전에 필그림프라이드가 제시한 주당 45달러보다 10% 이상 많은 것이다.

타이슨은 힐셔이어의 주가를 감안할 때 35%의 프리미엄을 인정했다. 타이슨은 힐셔이어 인수를 위해 모건스탠리와 계약했다고 밝혔다.

타이슨은 이번 거래가 성공하면 힐셔이어가 앞서 발표한 피너클푸드 인수는 철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니 스미스 타이슨 최고경영자(CEO)가 브랜드 확장을 추진하면서 힐셔이어 인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스미스 CEO는 특히 마진이 높은 패키지식품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닭고기 업체 필그림 이어
돈육업체 타이슨도 가세
유통망 결합 시너지 기대

미국 2대 닭고기 생산·유통업체 필그림 프라이드는 지난 27일 힐셔이어브랜드를 64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필그림이 힐셔이어에 제시한 주당 45달러는 22%의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이다.

필그림은 당시 합병이 성사되면 연매출 124억 달러 규모의 대형 식품업체가 탄생하게 된다면서 양사의 브랜드와 유통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그림을 비롯해 타이슨이 피너클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회사가 인수에 성공하든 피너클 인수는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힐셔이어는 43억 달러에 피너클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힐셔이어의 피너클 인수 계약이 파기되면 관련 비용만 1억6300만 달러가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힐셔이어의 주가는 17.7% 급등한 52.76달러로 마감했다. 타이스의 주가 역시 6% 이상 올랐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우크라군 여전히 교전 상황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회 건물에 침투한 친러시아 반군이 문을 발로 차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분리주의 민병대 진압작전을 수행하던 정부군 헬기가 민병대 로켓포 공격으로 추락해 군인 14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5일 대선 이후에도 반군과 정부군이 치열한 교전을 벌이는 등 혼란이 여전하다. 도네츠크/AFP연합뉴스

글로벌 리포트

"中 경기둔화는 환경오염 때문"

중국 경기둔화의 주원인 중 하나가 '환경오염과의 전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클레어 황 이코노미스트는 "환경오염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기준치를 넘어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철소가 폐쇄됐고 석탄 보일러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환경오염과의 전쟁으로 오는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35%포인트씩 깎이고 특히 올해가 제일 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꼽히는 석탄과 철광석 철강 시멘트 유리 등은 중국 전체 산업생산의 약 16%, GDP의 6%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美하원 대북제재 이행 법안 통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은 빠졌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에 대한 제재 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법안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조약 체결

러시아가 유럽연합(EU)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출범 첫 걸음을 뗐다.

EEU 준비당사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29일(현지시간) 카자흐 수도 아스타나에서 EEU 창설조약을 체결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약서명이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EEU는 관련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뻐했다. 그는 "EEU의 모든 규정은 보편적이고 투명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EU가 내년 1월 본격 출범하게 되면 1억7000만명의 경제권이 탄생한다.

유튜브, 통신사 인터넷 속도 평가

'Video Quality Report' 공개
컴캐스트·RCN이 최고
타임워너는 중간 등급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YouTube)가 인터넷 속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국 인터넷서비스제공 업체(ISP)가 제공하는 지역별 인터넷 속도에 대한 평가에 나섰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가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날 미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평가한 이른바 "비디오 퀄리티 리포트"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를 통해 어느 업체가 유튜브 동영상을 얼마나 더 잘 전달하는 지 고객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등급은 유튜브HD인증(YouTube HD Verified)·표준화질(Standard Definition)·저정밀화질(Lower Definition) 등 세 가지다.

이번 평가에서 뉴욕지역에서 버라이즌의 FiOS와 케이블비전의 옵티멈온라인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타임워너는 뉴욕지역에서 중간등급인 '표준화질' 등급을 받았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RCN코퍼레이션과 미국 1위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가 '유튜브HD인증' 등급을 받았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통상임금 적용 신의칙 살펴라" "노조 전임자 급여 제한 정당"

〈신의성실의 원칙〉

노동현안 기업 손 들어준 대법·헌재

근로자 승소 판결 파기… 한국지엠 1조2000억 부담 덜어
타임오프제 만장일치로 합헌… "노조 독립성 확보에 기여"

통상임금, 타임오프제 등 핵심 노사 현안에 대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지엠 노동자 남모씨 등 5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노사가 신뢰해 임금 협상을 했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확대로) 추가 법정수당을 받게 됐을 때의 실질 임금인상은 임금 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이 신의칙 기준으로 다시 심리해 정기상여금의 소급 청구를 부인하면 한국지엠은 3년 치 소급분 1조2000억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에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헌재는 민주노총 등이 '타임오프제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노조가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근로시간을 면제해 노조활동을 지원해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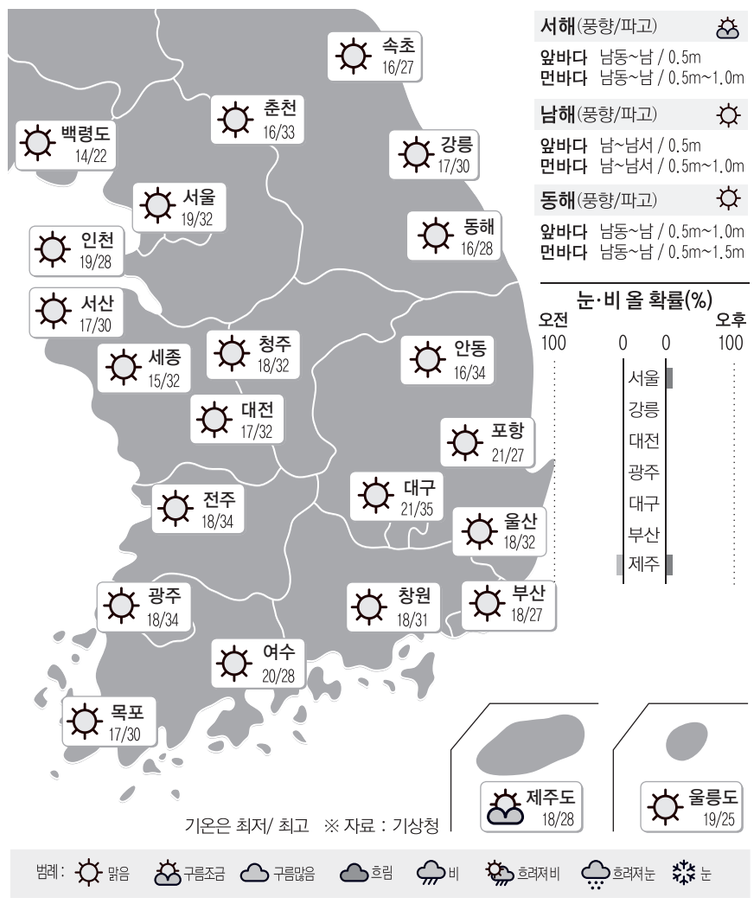
타임오프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용자 측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타임오프제는 여전히 폐기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태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내일의 날씨

5월 31일 ☼ 해뜸 05:13 해짐 19:47 ☽ 달뜸 07:16 달짐 21:42

일본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가 되겠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32도를 기록하겠다. 특히 인천과 속초, 동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수사 45일째 '오리무중'… 측근 입도 못열어

기는 檢·警… 나는 유병언
이재옥 이사장 등 8명 체포
증거인멸에 '모르쇠'로 일관
금수원 소극적 대처 도마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로 총진군하고 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어느덧 45일이 흘렀지만 번번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22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현상수배했다. 유 전 회장처럼 알려진 기업인이자 종교인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애초 검찰과 경찰이 제시한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 5000만원, 대균씨 3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5일 이들의 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 전 회장 부자에 총 6억원의 보상금이 걸린 것이다. 5억원은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상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이다.

이렇게 거액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지만 검찰의 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지만 정작 유 전 회장이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신도들을 덮칠 때마다 유 전 회장이 현장이 없었던 것은 물론 체포된 신도들이 그와 관련된 진술도 거부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주변 인물을 분석해 핵심 측근을 대부분 체포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를 돕다 검·경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구원파 신도는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 30대 여성 신모씨 등을 포함해 29일까지 총 8명이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측근 양모(56)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양씨는 지역 번호판을 단 EF쏘나타를 타고 유 전 회장과 함께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양씨를 체포했는데도 유 전 회장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한다면 검찰의 총력전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초동 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경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이 은신했던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이미 그는 자취를 감춘 뒤였다. 특히 구원파 신도들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금수원을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유혜은 기자 euna@

농어촌공사 승진비리 간부 징역 3년

농어촌공사 승진비리를 주도한 전 공사 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이종문 판사는 지난해 말 불거진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전 공사 간부 윤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시험문제 출제기관 관계자 엄모(56)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다른 전 공사 간부 윤모(53)씨는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윤씨는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씨에게 돈을 주고 농어촌공사 승진(3급)과 정규직 내부채용(5급) 시험문제를 빼낸 뒤 다른 윤씨와 함께 응시대상자 25명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오간 돈의 규모가 3억1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2003~2007년에도 같은 수법의 부정이 저질러진 사실을 확인, 형사입건할 수 없는 30명의 명단을 공사에 통보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농어촌공사는 공소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비리 연루자 전원을 파면 등 중징계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신도들 교란작전에 순천서 '맴맴'

경찰에 허위 제보 수사 혼선
밀항땐 책임론 피할 수 없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측은 수사 초기인 지난달 말 대외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는 수사를 회피·교란하려는 연막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지난 12일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흘 뒤인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도 지난 16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그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곤 유 전 회장 부자와 검찰의 기나긴 숨바꼭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원파 신도들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 유 전 회장에게 필요한 물과 음식, 현금, 차명 휴대전화 등을 마련해 전달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 허위 제보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가장 최근 유 전 회장의 흔적이 발견된 전남 순천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추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며칠째 수색에도 불구하고 순천 부근에서 유 전 회장의 자취는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도 제기한다. 순천과 가까운 여수 인근 섬 지역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로 가는 주요 밀항 포인트로 꼽힌다. 만약 그가 이미 밀항한 것이라면 검·경은 행방을 놓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혜은 기자 euna@

재산동결 등 전방위 압박에도 '뻔뻔'

국세청 유씨일가 1000억대 압류
검찰은 추징보전명령 집행 예정

금감원과 검찰, 국세청 등 사정 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유 전 회장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15일 중간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전해지 등 관계사의 불법 외화유출과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또 내달 중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행위가 드러난 관계인 및 관계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 등을 포착한 국세청은 이미 유 전 회장 일가의 부동산과 동산 100건에 대해 압류 조치한 상태다. 압류가액은 약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박도 상당하다. 검찰은 지난 21일 소위 구원파의 본산으로 꼽히는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금수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 체포를 위해 경찰과 함께 총 6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2400억원 상당의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즉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 전 회장과 대균씨는 검·경에 출두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듯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더위가 뭐예요?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의 무더위가 찾아온 29일 오후 한강에서 한 시민이 웨이크보드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기업 절반 "신입채용 작년보다 깐깐"

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신입 채용을 지난해보다 까다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올해 신입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199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절차 및 기준 강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54.3%가 '지난해보다 까다롭게 진행한다'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조기퇴사 및 이직을 막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0.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37%),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23.1%), '채용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21.3%), '핵심인재로 키우기 위해서'(18.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지난해보다 까다로워진 절차나 기준으로는 '심층면접 실시'(39.8%,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고, '인성면접 비중 확대'(35.2%)가 바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류전형'(12%)보다 '면접전형'(76.9%)이 더 까다로워지는 추세였다.

기업 10곳 중 6곳(56.3%)은 채용 진행 과정에서 완화된 것이 '있다'고 답했다. 완화된 절차나 기준으로는 '지원자격 제한'(46.4%, 복수응답), '이력서 기재항목 등 축소'(13.4%), '전형 단계 축소'(13.4%), '어학성적 등 하향 조정'(10.7%) 등이 있었다.

유혜은 기자 euna@

하나SK카드 콜센터 상담원… "경력수당"

여성직장 재탐색

월급여는 180만~250만원선

모집요강	
모집직종	텔레마케터
직무내용	인바운드 상담
접수마감일	2014년 6월7일
고용형태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경력조건	2개월 이상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경력자

인력공급업체 (주)한국고용정보가 하나SK카드 콜센터 인바운드 상담원을 모집한다.

업무 내용은 하나SK카드 대표번호 인바운드와 블랜딩이다. 지원자의 학력은 관계없으나 2개월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카드사, 은행, 보험사, 대출 등 금융권 인바운드 경력자에게는 경력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장애인 병행채용도 하고 있다.

근무처는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근처에 있다. 회사는 신규센터로 관리자 승격이 빠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월 급여는 18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고 경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6454-2443)로 하면 된다. 유혜은 기자 euna@



공병호의 독서산책

조우석 '인생 부자들'

'나답게, 폼나게 살아온 12인의 인생 이야기를 엮은 책'.

인터뷰를 모은 책치고 수준이 높아서 읽는 데 애를 먹었던 책을 소개한다. '인생 부자들'은 책 제목대로 세속적인 기준의 부자가 아니라 인생 부자들이다. 가수 장사익, 컬렉터 현태준, 문인 문정희, 기업가이자 예술가 김창일, 가수 한대수, 탤런트 김미숙, 첼리스트 정경화, 광고인 김홍탁, 사진예술가 김아타, 스님 정목, 한국학 연구가 김열규. 독자들에게 "이렇게 한 평생을 살 수도 있구나"라는 탄성과 아울러 자극을 자아내는 책이다.

맨 마지막에 소개된 김열규 교수의 인터뷰로부터 책읽기를 시작했다. 작년 10월 타개한 김열규 교수는 한국학 분야의 대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이 인터뷰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인터뷰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서강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59세에 경남 고성으로 낙향한 고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책을 펴냈던 김열규 교수는 한 여름 땡볕에서 김매기에 여념이 없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준다. 땡볕에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김 교수는 "할머니 이런 날씨에 이런 험한 일을 하십니까"라고 묻는다. 할머니는 "이게 다 낙 아인교"라고 답하는데, "이게 다 낙(樂) 아닙니까"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털석 주저앉고 말았다고 한다. 한여름 밭에서 인생철학의 교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인터뷰의 묘미는 한두 문장이 우리의 정신을 깨울 수 있다는 점이다.

김열규·장사익·정경화…
나답게, 폼나게 살아온
각계인사 12명의 이야기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나이 마흔다섯까지 굼벵이처럼 지내던 제가 올해도 19년째 노래를 부르며 산다는 것도 무척 좋지유. 전국 무대에 설 때마다 엄청 신나유." 가수 장사익씨의 인생 이야기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가구회사, 무역회사, 독서실 운영에 카센터 사무장까지 25년 동안 이것저것 해봤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그의 인생 이야기는 인생의 고단함을 말해준다. 잘나가는 장사익씨의 지금은 어떤가. 인터뷰에서 그는 '육체의 가시'가 여전함을 털어놓는다.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게 세상 삶이 아닐까요? 어떻게 일 년 열두 달이 항상 신바람이 나고 좋기만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 자체를 이렇게 정의해 버리고 나면 주눅 들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궂은 날은 궂은 날대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가뿐만 아니라 세계적 미술품 컬렉터로 유명한 아라리오그룹의 김창일 회장은 미술계에선 '기인'으로, 건축계에서는 '졸부'로 불린다고 한다. 후자는 아마도 시샘에서 나온 평가일 것이다. 사업을 해서 번 돈을 비슷한 사업 확장에 사용했다면 김창일 회장을 주목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돈을 기준으로 하면 세상에 김 회장보다 부자는 많다. 하지만 그는 미술품 컬렉터로서 박물관 건립 등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때문에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다. 인터뷰어는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요"라고 질문을 던진다. 김 회장 이야기는 이렇다.

"제 관찰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란 결국 제3자에게 발탁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결국 알아냅니다. 매사 부정적이고 대충대충 살면서 좋은 습관을 가진 것처럼 시늉만 한다면, 아마추어에겐 잠시 통할 순 있지만 결국 눈 밝는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법입니다."

인터뷰도 이처럼 격조 높을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 책이며, 치열함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 주는 책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손동영의 CSR 이야기



한국SR전략연구소장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모든 기업은 사회적기업이다

맨손으로 창업한 지 10여년을 넘기며 제법 자리를 잡은 친구가 있다. 요즘 그 친구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겠다며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그동안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그에게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보다 높은, 뭔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인 모양이다.

돈 욕심이야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돈도 벌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뜻깊은 일을 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적지 않다. 창업 후 겪게 되는 생존경쟁의 가혹함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그 길에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창업 후 안착까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된다. 자본금을 다 까먹기 전까지야 버티겠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면 기업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모든 기업은 생존이 먼저다. 이익이 많이 나면 주주에게 보상하고, 임직원에게 나눠 주고, 재투자도 한다. 그럼 사회적기업은 어떤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이익도 내는 건 결코 간단치 않다. 그렇다고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 생존을 확인하고, 그 뒤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 될까.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보통 영리기업을 가르는 칸막이 자체가 사라진다. 물론 기업 경영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돈벌기에만 급급한 자본가들도 있긴 하다.

우리나라엔 현재 1000여개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이다. 사회적기업을 도와주겠다는 공공조직도 많다. 정부 각 부처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각종 제도를 만들고 기구를 설치했다. 그런데 성공신화를 찾기가 어렵다.

사회적기업이란 용어가 익숙한 데 비해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공공부문에서 바라보는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기업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공공부문이 정해놓은 틀에 들어맞아야 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인증은 박탈된다. 물론 혜택도 사라진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은 그저 '좋은 일하는 기업'일 뿐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시민들의 자선심리에 의지해 영업을 지탱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어느 대기업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TV CF로 활동하는 모습을 널리 알리며 나타난 현상 중 하나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정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혹은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증진하는 기업, 발생한 수익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이라 말한다. 이 틀에서 주위의 기업들을 바라보자. 아무 기업이고 홈페이지가 있다면 들어가 보라. 우린 돈만 벌면 된다고 선언한 기업은 없다. 모두들 그럴 듯한 미션과 비전을 보여준다. 좀 세련된 기업은 CSR 연례보고서를 올려놓으며 자랑도 한다.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인증'이란 요소만 빼고 본다면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계는 모호하다. 글로벌기업 가운데 CSR 활동에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IT기업은 물론, 유니레버나 네슬레 같은 소비재업체들도 꽤 인정받는 CSR 우수기업이다. 이들에게 누가 인증을 주지는 않는다. 지구환경,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면 주주나 임직원, 지역공동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을 인정한다. 표현은 사회적기업이 아닐지라도.

최근 열린 'CSR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한 CSR인터내셔널 창립자 웨인 비서 박사는 "기업이 더 이상 단순히 성공만을 바라보는 건 불가능해졌다. 우리는 많은 사회변화를 경험하며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다"고 말했다. 패널토의에 참여했던 LG그룹 김영기 부사장은 "아무리 이익을 많이 가져다줘도 가치와 경영이념, 법률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식, 타협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다.

사회적기업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기업은 사회적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남보기에 그럴 듯한 포장 말고, 본질을 바꾸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

온라인 와글와글

제주도 땅 사모으는 중국인…제주로 해외여행?



○…중국인의 제주도 땅 사랑 열풍이 식을 줄 모른다는 소식이다. 최근 제주도 땅을 매입해 이를 다시 중국인에게 되파는 중개사업도 등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여행 가는데 해외경비 내고 가게 생겼네", "저 정도면 나라에서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크림반도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몇 십 년 후면 한국 땅은 중국이 다 사버릴 듯", "우리나라 땅을 외국에 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이젠 제주도 여행도 해외여행에 속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8%)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어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이 22.8%,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땐 없애버리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그 대상은 김정은과 일당들이다. 북한 주민 모두는 아닌 것. 저들을 변화시키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해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들은 최근 북한의 비이성적 대남 도발을 이유로 비판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북한은 혐오대상", "설문조사가 헛소리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황당한 소리를 늘어놨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우람 기자 hura@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소방방재청 해체, 소방관·국민 분노 '서명 확산'
2. 북한 "일본과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北日관계 급진전
3. 중앙대 기숙사 화재 "작업 중이던 인부 126명 대피"
4. 주한 레바논 대사 사망 "사고 경위 보니… 과속 때문?"
5. 요양병원 화재, 시신부검 결정 "결박 여부 밝힐 것"

오늘의 BAE 배국남닷컴 www.baekn.com

'우는 남자' 모성애 연기, 김민희



배국남닷컴은 29일 배우 김민희를 만났다. 김민희는 '아저씨' 이정범 감독의 영화 '우는 남자'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여자 모경 역을 맡아 첫 모성애 연기에 도전한다. '우는 남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던 킬러 곤(장동건)이 조직의 마지막 명령으로 타깃 모경을 만나, 임무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벌어지는 액션 드라마다.

이날 김민희는 모성애 연기에 대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 시나리오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상황에 따라 표현했다. 모성애라고 특별히 다른 감정을 주지 않았다. 처음 느낀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연기했다. 마음으로 느끼면 경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희는 또 이정범 감독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감독님이 워낙 좋았다. 배우와 감독의 신분을 떠나 사람으로서 좋았다. 기회가 되면 작품을 또 같이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녀는 장동건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같이 호흡 맞추는 신이 거의 없다. 영화를 고를 때 그 부분에 매력을 느꼈다. 두 남녀 주인공이 만나는 신이 한 장면밖에 없다는 것이 특별하고 재밌었다.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다"고 말했다. 김민희는 항간의 연기 호평에 대해 "작품을 고를 때 캐릭터가 제일 중요하다. 경험의 유무를 떠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으면 선택한다. '우는 남자' 역시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에 많이 끌렸다. 정말 숨을 쉬고 있고 살고 있지만 죽어 있는 거 같은 그런 감정의 선이 많이 와 닿았다.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데스크 칼럼

더 고삐 죄야 할 임대차정책



정 재 석
부동산시장부장

서울 마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한다. 때 이른 무더위 때문이 아니다. 얼마 전 8월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을 앞두고 집주인과 맞닥뜨린 후부터다. 집주인은 A씨에게 대뜸 전세금 6000만원 인상을 일방 통보했다. 집주인이 갑이기에.

2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친구들에게 소주 한 잔 사지 못해 핀잔까지 받으면서 봉급을 탈탈 모은 그였다. 그는 순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A씨와 같은 단지 대형 평수에 전세 살고 있는 집주인이 오른 전세금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형 평수 전세가가 2년 전보다 꼭 60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그도 을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난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전세가 역시 줄곧 오름세다. 여기에 전세에서 수익률이 좋은 월세로의 임대형태 전환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

올해 전세가가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한다지만,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주거 불안이 커진 세입자들은 자연스레 주택 매입에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주변에서 하우스푸어들을 숱하게 봐왔지만, 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설마하며 무리해서 집을 사든지, 아니면 2년마다 떠돌이 난민 생활을 계속 하든지 둘 중 하나다.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 정부의 각종 대책을 보면 귀가 솔깃해진다. 저리 대출은 물론 양도세 면제 등 집을 사면 여러 혜택을 준단다. 게다가 할인된 가격과 각종 옵션으로 미분양업체들도 손짓을 보낸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는다. 하지만 소득 부족 등으로 내집 마련을 못한 가구는 절반에 육박한다. 10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집 살 능력이 있는 가구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는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을 동시에 견인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다. 매매시장의 활성화가 임대차시장의 안정화를 일정 부분 뒷받침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지금은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을 두 갈래로 봐야 할 시점이다. 매매시장은 공급과잉, 거래정체, 가격정체 등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임대차시장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책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부동산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년째 매매거래 활성화와 임대차시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만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는 올 1분기 1025조원 정도로 급증했다. 또 거래폭증과 절벽을 반복하고,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하우스푸어 양산 등 불안의 연속이다.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지난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단 '임대차 시장'에 힘을 실었다는 점은 매우 전향적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공공, 민간, 준공공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 업체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갑을 관계'를 없애기 위한 임대차 관계 안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최장 12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선진국 독일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임대차보호법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 등록과 함께 임대료에 대한 과세도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임대차 거래를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설익은 '임대소득 과세'를 밝히면서 살아나고 있던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욕먹는 것은 설익은 대책 때문이지, 방향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스를 댄 격이다. 임대인에게 당장 과세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좋아라 하겠는가.

시장 충격을 고려할 때 성급한 추진보다는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 조치다. 2012년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집주인은 전체 다주택자의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제도 관리를 소홀히해 온 것이 비정상이다. 다만 노후 은퇴계층의 생계형 임대인들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대차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화를 통해 공고히 해야 한다. fugoo@

객석

여전법 체계 개편이 갖는 의미



이 태 운
여신금융협회 부장

지난해 11월 말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체계를 개편했다. 주요 골자는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업의 3개 업종을 하나로 묶고 업무 범위도 네거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법체계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여신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무엇으로 규정할지를 놓고 정부와 업계의 생각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실물지원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을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영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을 통합한 여전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수활성화를 유도했다. 그 결과 모든 금융산업이 리스크가 덜한 개인 금융에 주력하게 됐다. 하지만 뒤이어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규제가 강화됐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은 되레 약화되고 말았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말보다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제반 제도와 법 정비가 우선이다. 여전법 체계 개편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 여신 금융사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법 제정 당시로 돌아가 생각하면 현재의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대 금리시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으로 특화시켜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자의 눈

'자랑스런 롯데'가 불편한 이유



이 선 애
산업부/lsa@

"자랑스런 롯데의, 아름다운 롯데의, 사랑스런 롯데의, 영광스런 롯데의~"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사가(社歌) 1~4절의 한 소절이다.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가 직접 노랫말을 만들어 세간의 화제가 됐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점은 비난할 수 없다. 오히려 조직원들의 높은 충성심은 조직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해당 사가가 나온 시기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칭찬을 넘어 칭송 일색의 노랫말은 롯데그룹의 상황에 비춰 볼 때 낯 뜨겁다. 최근의 롯데는 자랑스럽지도, 영광스럽지도 않다.

롯데쇼핑은 올해 초 세금탈루 혐의로 600억원을 토해냈다. 롯데홈쇼핑은 납품비리가 적발돼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롯데의 간판 최고경영자(CEO)였던 신헌 롯데쇼핑 전 대표는 수사대상에 올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기에 롯데쇼핑의 드러그스토어 '롭스'가 CJ올리브영이 입점된 매장의 건물주를 몰래 만나 롯데와의 계약을 종용했다는 사실도 최근 드러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인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도 연이은 사고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추락 사고만 2건, 화재 및 폭발 사고도 2건에 달한다. 코리아세븐의 한 직원은 "사내에서만 부르는 것이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롯데 찬양 일색의 사가는 겸연쩍은 게 사실"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룹의 위기 상황에서 계열사 대표가 나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노력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느닷없이 칭찬 일색의 사가를 새로 불러야 하는 직원들이 롯데를 더 자랑스럽고,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조남호의 중구난방

윤리경영 다음은 안전경영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재계가 안전경영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어찌보면 지난해 재계의 화두였던 윤리경영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대기업들은 지난해 하나같이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연초부터 유독 많았던 대기업 관련 안전사고 때문이다.

작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배관교체 작업 중 불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3월에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에서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달 경북 구미에 있는 LG실트론 공장에서는 유독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6월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아르곤가스가 누출돼 5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숨졌다.

문제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대기업들의 모습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늑장 신고나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했다. 일례로 한 대기업 계열사는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뒤집어씌우려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올해도 대기업들이 연관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말 전남 여수산단 원유부두에서 유조선 충돌에 따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월에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내 체육관 천장이 붕괴되는 바람에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4월에는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이던 LPG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5월 들어서는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수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작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변화다. GS칼텍스 사고가 계기를 만들었다면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 여론이 대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했다.

GS칼텍스는 기름 유출이 일어났을 때 적절치 못한 초동대응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조직적인 축소·은폐 혐의에 검찰이 조사에 나섰고 관련자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래서였을까. 2월에 발생한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당시 경영진이 보여준 대처는 이전 모습들과 달랐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했다.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안전경영을 재계의 지상과제로 만들었다. 재계는 작년 윤리경영을 내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안전경영을 다짐하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500여개 회원사에 안전경영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50여개 주요기업 CEO가 모여 안전을 기업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했다.

재계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선택한 '윤리경영' 위에 '안전경영'을 더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껏 재계가 보여준 면면을 보면 잘 지켜질지 쉽사리 믿음이 가질 않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경영의 근본 가치라 할 수 있는 윤리와 안전을 이제서야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함께, 재계의 각오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기원해본다.

산업부 차장 spdran@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 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정치경제부 (02)799-2655 시장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사회생활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국제경제부 (02)799-2650 사진팀 (02)799-2634
광고접수 ·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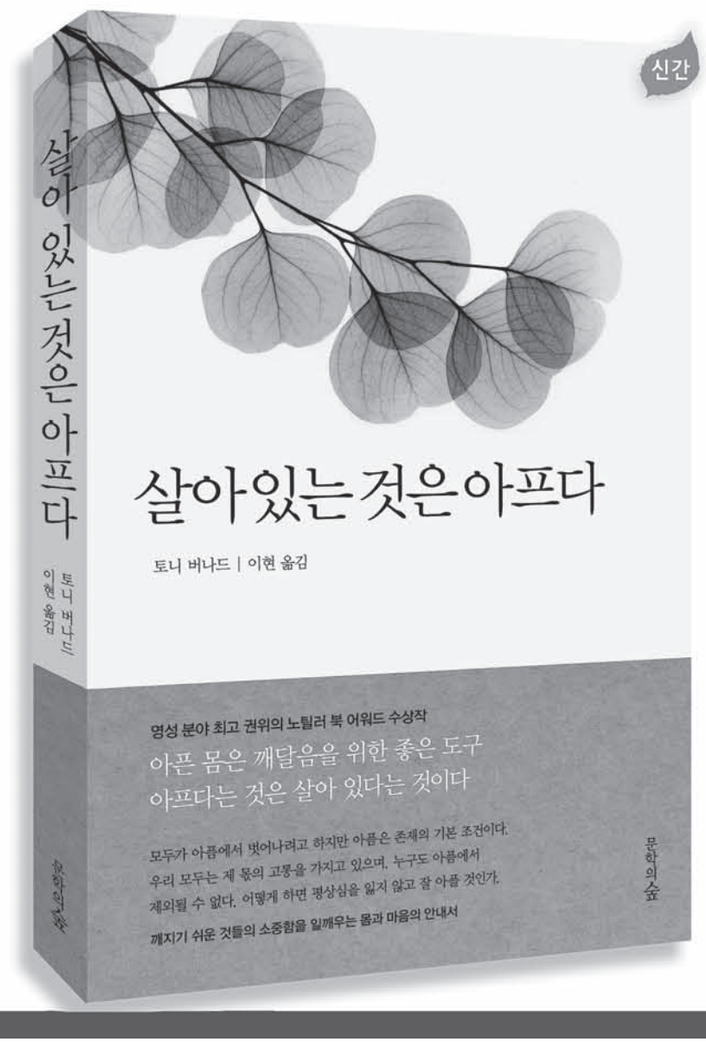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문학의숲 당신을 닮은 좋은책 TEL 02)325-5676



31년 경제기자, 모교 부총장 된다

이장규 삼정KPMG 부회장, 서강대 대외부총장에
중앙일보 편집국장 역임… 국내외 경제 저술활동
2007년 기업인 변신 하이트진로 부회장 지내기도



이장규 삼정KPMG 부회장이 6월 2일부터 서강대학교 신임 대외부총장으로 활약한다. 외부출신 전문경영인으로서 대외부총장에 선임된 건 서강대 개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3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교육과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행운이다. 학교 행정엔 문외한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서강대의 인연은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이 부회장은 1977년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 동문인 박근혜 대통령과 1년 선후배 사이다. 2011년부터는 서강대 경제대학원 초빙교수로 경제학부와 경제대학원에서 '대통령의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선임한 건 이러한 인연과 함께 그가 여러 분야에서 보여준 능력 때문이라는 게 서강대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미주리대학교 신문대학원을 수료했고, 중앙일보에 입사해 31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그는 경제부 기자로서 국내외 경제 문제에 천착했으며 뉴욕특파원, 일본총국장, 편집국장도 지냈다. 1996년부터 10여년간은 칼럼으로 필명을 날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선 베테랑 경제기자 출신이자 경제학자로서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창조경제 실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우선 도출해야 하고, 먼저 정부가 사회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쓴소리하기도 했다.

저술 활동도 왕성하게 이어왔다. 그는 5공화국 당시의 경제사건과 정책적 배경 등을 재조명한 '당신이 대통령이야'(1991)와 그 속편에 해당하는 '실록 6공경제'(1995)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기록했다. 기자생활 후반엔 브릭스(BRICs), 이머징마켓, 자원전쟁 등 세계경제의 흐름 변화에 주목, 세계 곳곳을 누비며 '19단의 비밀-다음은 인도다'(2004), '카스피해 에너지 전쟁'(2006) 등을 냈다.

그는 2007년부터는 기업인으로 변신해 하이트진로그룹 대표이사 부회장, 재단법인 나눔21 이사 등을 역임했다. 다만 2012년부터 몸담아온 삼정KPMG은 서강대 부총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사직서를 냈다.

유기풍 서강대 총장은 "이장규 신임 부총장이 그동안 언론계, 재계, 학계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보여준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서강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염수정 추기경(왼쪽 여섯째)이 서울 필동 한국의집에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대,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전했다. 연합뉴스

염수정 추기경, 7대 종단 지도자 오찬간담회

교황 방한 때 미사참석 요청

"종교 간 공존 모습 보여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방한 때 조계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7대 종단 지도자를 만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9일 서울 필동 한국의집에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연 오찬간담회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8월 명동성당에서 주례할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총무인 김영주 목사를 비롯해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서정기 성균관 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 대주교, 조규만 서울대교구 주교, 유경촌 주교 등도 함께했다.

염 추기경은 "추기경 서임 감사 미사에 함께 해주셨던 7대 종단 지도자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교황님께서 오는 8월 방한하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다른 종교의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종단 지도자 중 가장 연장자인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교황께서 한국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매우 기쁘다. 세계 종교의 대표적 어른이신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신다고 하니 우리 모두 합심해 환영한다"고 답했다.

한 회장은 또 "특별히 한국은 다종교 국가이면서도 평화롭게 모든 종교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황의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종교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종단 지도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걱정했으며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염 추기경은 "종교계 어르신들께서 국민의 마음을 잘 추슬러 달라"고 당부했다.

강영관 기자 kwan@



왼쪽부터 화성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은진 대리, 채돈나 센터장, 유영임 차장.

남홍길·이상엽·김승국 교수, 성악가 홍혜경씨, 김하종 신부

'제24회 호암상' 영광의 얼굴들

식물생물학 분야의 권위자 남홍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와 세계 정상급 프리마돈나 성악가 홍혜경씨 등 5명이 올해 호암상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호암재단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제24회 호암상 시상식'을 열고 과학상, 공학상 등 5명에게 호암상을 수여한다. 수상자은 지난달 2일 발표됐다.

올해의 호암상 수상자는 과학상 남홍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공학상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훈교수, 의학상 김승국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예술상 성악가 홍혜경씨, 사회봉사상 김하종(보르도 빈첸시오) 신부다.

과학상 수상자인 남 교수는 식물의 성장과 노화를 조절하는 다양한 유전자를 발견하고, 복잡한 수명조절 메커니즘을 구명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공학상 수상자인 이 특훈교수는 대사공학적으로 개량된 대장균을 이용해 포도당으로부터 가솔린을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고, 의학상을 받은 김 교수는 췌장 내 인슐린 분비세포의 증식과 노화를 조절하는 인자를 발견, 새로운 당뇨병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예술상을 받은 홍씨는 30여년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역으로 활동해 온 세계 정상급 프리마돈나로, 밀라노라 스칼라, 런던 로열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인 오페라단 및 교향악단들과 협연을 해왔다.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 신부는 난독증 장애를 극복하고 사제가 된 후, 지난 1990년 한국에 입국해 지금까지 노숙인, 독거노인,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호암상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인재 제일주의'와 '사회공익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이 회장이 제정한 상이다. 김지영 기자 gutjy@



왼쪽부터 '과학상' 남홍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공학상'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특훈교수, '의학상' 김승국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예술상' 성악가 홍혜경씨, '사회봉사상' 김하종(보르도 빈첸시오) 신부.

화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국 운영사업평가 '으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화성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채돈나)가 전국 운영사업평가에서 으뜸을 차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8일 전국 100여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여성새일센터 운영사업평가' 결과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최고인 A등급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운영사업평가는 전국 여성새일센터의 전년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역량 △상담 서비스 △훈련 서비스 △취업연계서비스 △취업성과 부문 등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화성시 병점역 유앤아이센터에 위치한 화성새일센터의 이번 쾌거는 2009년 7월 처음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지정으로 새일센터를 운영하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결과이다.

채돈나 센터장은 "앞으로 여성들에게 취업지원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기자 fugoo@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세월호 피해' 20억 기탁



부영그룹 이중근〈사진〉 회장은 29일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모금에 20억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중근 회장은 "비통하게 목숨을 잃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브라질 월드컵 8강 기원 메달 만든 지재봉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원"

50년간 메달 금형 조각
첫 경기 전에 전달할 것

금형 조각 장인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메달을 만들었다. 금형 조각 장인 지재봉〈사진〉씨는 50년 가까이 메달을 제작해 왔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팬이 됐다. 당시 대표선수들의 얼굴을 메달에 새겨 전달한 이후 2010 남아공 월드컵 때도 대표선수들을 위한 기념메달을 만들기도 했다.

이번 역시 원정 8강을 기원하는 기념 메달을 제작한 그는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메달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대표팀을 위해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메달을 만드는 일밖에 없더라"면서 "그래서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23명의 대표선수와 홍명보 감독, 허정무 단장에게 줄 메달 25개를 만드는 데에만 꼬박 한 달이 걸렸다고 한다. 이번에 제작된 메달은 지름 10㎝, 두께 1㎝ 크기의 동(銅)메달이다.



앞면에는 금으로 도금된 트로피와 본선 참가 32개국의 국기가, 뒷면에는 홍 감독과 태극전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때문에 뒷면의 경우 지난 9일 최종명단이 확정된 이후 바쁘게 만들어야만 했다. 당초 30일 대표팀의 출국 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갑작스레 김진수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하고 박주호 선수가 합류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김진수 선수의 메달에 이름만 교체해도 되지만 박주호 선수를 위한 금형을 따로 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씨는 "그 부분만 파내면 조금이라도 자국이 남는다"면서 "8강 진출을 기원하는 메달인데 그럴 수는 없다. 러시아와의 첫 경기 전에 반드시 태극전사들에게 메달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美 킹카운티 법원
3번째 '한인 판사'
정상기 변호사



미국에서 13번째로 큰 인구 200만명의 워싱턴주 킹카운티 지방법원에서 3번째 한인 판사가 탄생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가 정상기(52·미국명 새뮤얼 정) 변호사를 판사로 임명했다. 이 법원 52명의 판사 가운데 지명희·전형승 판사에 이어 3번째 한인 판사다. 그는 킹타운티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가정법 등을 다루게 된다.

시애틀 소재 '리 애나브 정 법률회사'의 파트너인 정 변호사는 1989년부터 주로 상법·중재 등의 분야를 맡아왔다. 컬럼비아대와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졸업 뒤 1989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해온 그는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를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정 신임판사는 "오는 6월 23일부터 출근하며 2016년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대우건설 '시립 평화로운 집' 재능기부 봉사

대우건설은 최근 서울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시립 평화로운 집'에서 빨래건조장을 설치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우건설 엔지니어링실 임직원 77명이 참여해 89㎡(약 27평) 규모의 야외 빨래건조장을 설치하고 1 대 1 매칭 나들이, 발 마사지, 식사 및 목욕보조, 시설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특히 본사 근무 외국인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조기를 사용했는데 한 달에 100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운영비 문제가 있었다"며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능기부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영관 기자 kwan@



지난 27일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시립평화로운집'에서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빨래건조장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우건설

인사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 강옥희

◆한국IBM △글로벌비즈니스서비스(GBS) 대표 강학동

◆한림대학교 △부총장 송승철

◆울산대학교 ◇승진 △학생생활관장 지수철(2급) △총무부처장 박수동 △아산스포츠센터 부관장 김복민 △학술정보서비스팀장 정준모 △교무팀장 이규원(이상 3급) △음악대학 및 미술대학 교학행정실장 정종주 △학술정보지원팀장 주한술 △정책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교학행정실장 양현철(이상 4급) △연구지원팀장 엄주영 △교양기초교육원 교학행정실장 이상칠 △의과대학 학생교육팀 고희선 △총무처 시설관리팀 신대현 △입학처 입학관리팀 조상석(이상 5급) ◇보직임용 △취업창업지원부처장 박원양 △의과대학 교학행정국장 김덕수 △대외협력팀장 안종한 △의과대학 교무연구팀장 이현민 △자연과학대학 교학행정실장 이상용

◆레이크힐스순천 컨트리클럽 △부회장(승진) 정용 △대표이사 한상준

◆연합인포맥스 ◇승진 △정책금융부 부장대우 황병극, 한창헌 △산업증권부 부장대우 이성규 △방송본부 차장대우 윤정탁

부음

▲김성배(자영업)·현배(JH커리어 부장)·준배(전자신문 전자자동차산업부 차장)씨 부친상 = 29일 오후 6시,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5월 31일 오전 6시, 033-258-9407

▲이성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정호(삼일회계법인 부장)씨 부친상, 안우영(LS엠트론 차장)씨 장인상 = 29일 오전 11시 13분, 서울성모장례식장 9호실, 발인 31일 오전 9시, 02-2258-5940

▲곽준명(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그룹리더)씨 부친상 = 28일 오후 9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31일 오전 5시 30분, 02-3010-2000

▲이승녕(청주시 자연보전담당)씨 장인상 = 29일 오전 0시 30분,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백합실, 발인 31일 오전 9시, 043-298-9200

▲사공진(한양대 경상대학장)씨 장인상, 조정호(숙명여대 교수)·경호(재미사업가)·민호(사업가)·명덕(가천대 교수)씨 부친상 = 29일 오전 6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 6월 1일 오전 6시, 02-3410-3153

Cover Story

유니폼, 경기를 지배하다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기동력과 패기를 앞세운 붉은 유니폼 선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주도했다.
압박수비와 속공은 마치 벌떼를 연상시킬 만큼 빠르고 위협적이다.
붉은 유니폼의 주인공은
2002 한·일 월드컵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2-0 승리로 장식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다.

옷 속에 숨겨진 승리의 방정식



1948년 런던올림픽서 첫 붉은 유니폼 착용
태극기·투지 상징… 한국 트레이드마크로

붉은색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트레이드 마크다. 시대가 변해도, 강산이 수차례 변해도 붉은색 유니폼은 변하지 않았다. 해방 후 첫 국제대회 출전이던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도 붉은색 상의에 흰색 하의를 입었다. 태극기와 투지를 상징한 것이다.

대표팀의 유니폼 변천은 월드컵 도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녀 출전이던 54년 스위스월드컵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시아 대표로 출전했지만 헝가리에 0-9, 터키에 0-7로 패하면서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그러나 세계의 높은 벽은 축구 실력만이 아니었다. 선수들의 유니폼도 타국 선수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메인 컬러인 붉은색은 비만 맞으면 염색이 번져 핏물처럼 흘러내렸다는 일화도 있다.

32년 만에 본선에 오른 86년 멕시코월드컵에서는 상하의가 전부 붉은색이었다. 목선과 양쪽 소매 끝부분에 흰색으로 포인트를 줬지만 디자인이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많았다. 90년 이탈리아월드컵에서는 홈 유니폼과 원정 유니폼이 별도로 제작됐고, 94년 미국월드컵에서는 메인 컬러가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 붉은색 유니폼이 오히려 상대팀에게 투지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모던한 디자인에 다양한 기능성이 가미됐다. 쿨 모션 소재를 사용해 사상 첫 두 겹 유니폼이 소개됐고, 체온조절·통풍기능 등이 강화됐다. 특히 가슴에는 태극기를 대신해 대한축구협회(KFA) 마스코트인 백호가 새겨졌다. 2010년에는 기능성·디자인뿐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요소가 더해졌다. 플라스틱 병을 녹여 만든 새로운 섬유로 기존에 비해 30% 이상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켰다.

2104 브라질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3경기 중 2경기는 흰색 유니폼을 입는다. 역대 월드컵 성적에서 붉은색 유니폼 성적이 3승4무8패(승률 33.3%)였던 반면 흰색 유니폼 성적은 2승4무3패(승률 44.4%)로 다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체온조절·통풍·친환경 소재로 '업그레이드'
육상·배구·테니스 女선수 과감한 패션 '눈길'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많은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에) 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지금 기억해 보면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때 첫 대표선수로 선발돼 입은 유니폼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유니폼이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프로야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과 2009년 WBC(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으로 의류 브랜드의 유니폼 후원이 본격화됐다. 관중의 증가가 유니폼 매출 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구단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관중이 크게 늘면서 매출 증대와 유대감 향상이라는 두 토끼를 잡았다.

여성 선수들의 유니폼은 점점 과감해졌다. 테니스, 육상, 배구 등 일부 종목에서는 비키니를 연상케 하는 섹시 유니폼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유니폼의 섹시화 작업을 주도한 것은 세계육상경기연맹(IAAF)이다. 섹시 마케팅의 일종으로 TV와 신문이 여성의 섹시한 모습과 강한 이미지를 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테니스 여자선수들의 치마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경기 중 속옷이 드러나는 민망한 사진도 심심찮게 외신에 등장할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섹시 유니폼은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영국의 복싱챔피언 캐시 브라운은 "흥행을 위해 섹시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여성은 아직도 경기력만으로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그래픽 사유진 기자 yjsa2018 @·사진제공 나이키

커버스토리 18·19면

세레모니 하려다 '노골'… 아스널, 푸마 계약전 사진 파장

안정환·앙리 "유니폼 때문에"



2002 FIFA 한일 월드컵에서 아내 이혜원씨를 향한 세레모니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안정환은 세레모니 소재로 유니폼을 택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안정환은 "세레모니를 할 생각으로 유니폼 안에 멋지게 '혜원아 사랑해'라는 글을 써놓고 전반전을 뛰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골을 못 넣었고, 하프타임에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서야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운동선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유니폼은 팀에 대한 소속감을 드러내주는 것은 물론, 스포츠 스타와 소속팀을 사랑하는 스포츠 팬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능까지 한다.

이와 관련해 마냥 웃을 수만 없는 비화도 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육상 1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영국의 육상 스타 린포드 크리스티는 지난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FC의 바카리 사냐, 올리비에 지루, 그리고 아스널의 전설로 남아있는 티에리 앙리와 만나 함께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러나 이 기념사진은 생각지도 못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바로 티에리 앙리를 포함한 세 사람은 사진에서 당시 2014-2015 시즌용으로 추정되는 아스널의 새 유니폼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스널 FC는 새로운 파트너인 스포츠 브랜드 푸마와 스폰서십, 새 유니폼을 성대하게 발표하려고 한창 준비 중이었다.

지난해 5월 20년간 손잡아온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의 재계약 대신 푸마를 택해 5년간 1억7000만 파운드(한화 약 2932억원)의 대형계약을 야심차게 체결한 아스널로서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순간이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경기 끝낸 이상화 지퍼 내린 이유가…

스포츠史 숨은공신 '유니폼'

공기저항 최소화부터 부상방지까지

신체 조건 맞춘 특수소재 공법 적용

빙상·펜싱·사이클 등 기록경신 발판

신기록 쏟아낸 '전신 수영복'은 퇴출

유니폼은 스포츠의 흥행과 유대감 강화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스포츠 유니폼은 무엇보다 스포츠사를 새롭게 쓴 숨은 공신이다. 좋은 기록과 이변 속에는 유니폼의 첨단과학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육상·수영·사이클·빙상 등 0.001초를 다투는 기록 경기에서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특수소재 공법을 채용, 인간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유니폼에 의한 기록 경신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종목은 수영이다. 스포츠 의류 중 과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종목이기도 하다.

수영업계는 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0년대 초 물보다 가벼운 폴리프로플렌 소재 수영복을 개발했고, 1998년에는 전신 수영복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마린보이' 박태환(25)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반신 수영복을 착용했다. 전신수영복이 물의 저항을 덜 받지만 어깨 결림을 호소하는 등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전신 수영복 표면은 삼각형 모양의 미세 홈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물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나아가도록 되어 있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원리다. 그러나 국제수영연맹(FINA)은 전신 수영복의 개발과 동시에 세계신기록이 속출하자 전신 수영복을 퇴출시켰다.

스포츠 의류의 기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땀 흡수와 통기성이다. 축구·농구·배구·테니스·배드민턴 등 장시간 땀을 흘리는 경기에서는 유니폼의 땀 흡수와 통기성이 경기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 의류는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의 한 종류인 쿨맥스라는 기능성 소재를 채용하고 있다. 일반 면소재보다 젖은 옷이 빨리 마르기 때문이다. 4개의 홈이 땀을 빨아내 밖으로 발산시키는 원리다.

빙상 선수들은 칼날처럼 위험한 스케이트에 다칠 수 있어 특수 방탄 소재 케블라가 적용된 유니폼을 입는다. 이전까지는 유니폼 안에 상해 방지용 슈트를 겹쳐 입었지만 이제는 얇은 유니폼 하나만으로도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독특한 점은 서 있는 자세가 거의 없는 종목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역자(ㄱ)'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지퍼를 내리고 허리를 펴는 이유가 그것이다.

'빙속 여제' 이상화(25)의 유니폼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이상화의 팔 움직임과 습관, 신체조건을 정밀하게 체크해 가장 편안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유니폼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수들의 속옷에도 숨겨진 과학이 있다. 특히 축구 선수들이 유니폼 안에 입는 기능성 속옷에는 라이크라라는 소재가 사용된다. 실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최대 7배까지 늘어났다 원상태로 회복되는 높은 탄성력을 가지면서도 몸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이 편하다는 게 특징이다.

스포츠 의류 중에서도 독특한 복장으로 눈길을 끄는 종목이 있다. 펜싱이 대표적이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신아람의 '1초 판정 논란'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펜싱은 남자 단체 사브르와 김지연(26)의 여자 개인 사브르 금메달 등 금2·은1·동3개 를 따내며 올림픽 효자종목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펜싱 선수들의 경기복은 첨단 과학의 집결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방의 검에 의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스포츠 종목으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눈 부상을 당하는 선수가 속출했다. 따라서 펜싱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 제작에 첨단 과학을 적용하는 등 큰 공을 들였다. 날카로운 검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합성섬유인 케블라로 펜싱복을 제작했다. 얼굴을 보호하는 마스크는 스테인리스 강철로 제작, 검에 찔려도 절대 뚫리지 않도록 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상하의 무게 200g… 기능성에 초점"

아디다스 1967년부터 축구 유니폼 제작

디자인 국가대표팀·클럽 상징 색상 반영



유니폼은 소속팀의 정체성과 상징적 이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니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브랜드 아디다스 코리아 기획 담당자 김동휘 과장을 통해 아디다스의 유니폼 디자인 세계를 살펴봤다.

아디다스는 1967년 스포츠 의류판매와 더불어 축구 유니폼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디다스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하는 아르헨티나, 스페인, 독일 등 9개국을 비롯해 첼시FC,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등 클럽 유니폼을 제작했다. 국내는 수원삼성과 부산아이파크, 울산현대 등이다.

김동휘 과장은 "디자인 콘셉트는 각 팀의 역사와 상징, 업적을 반영해서 정한다. 구단과 논의 후 구단의 요청사항 반영해 최종적인 디자인을 결정한다"며 "색상의 경우 각 국가대표팀 및 클럽을 상징하는 색상을 위주로 트렌드 컬러를 감안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영감을 얻는 곳은 다양하다. 패션, 자동차, 건축물, 세계 각국의 문화, 역사 등에서 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요소를 찾는다.

그는 "늘 새롭고 멋진 유니폼을 기대하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며 "어느 곳에나 안티팬은 존재하지만 진정한 팬들은 언제나 새로운 유니폼을 지지하고 사랑해준다"고 말했다.

유니폼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능성이다. 최적의 움직임을 보장함과 동시에 체온을 적절히 유지해야 하기에 땀의 흡수와 배출이 중요하다. 이에 유니폼의 소재는 폴리에스터 100%로 만들어진다. 선수용 월드컵 유니폼에는 최첨단 시술인 '이다제로' 원단이 사용돼 경량성과 흡습속건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김동희 과장은 "우리의 강점은 경량성이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각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는 아디다스 유니폼은 상하의를 합한 무게가 200g을 넘지 않는다"며 "타사 유니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는 기술"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디다스의 목표"라며 "축구팬들이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를 디자인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김민정 기자 mj_kim@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롯데홈쇼핑



모바일 롯데홈쇼핑 어플을 다운받으면
롯데홈쇼핑이 '건강나눔 캠페인'에 2천원을 기부합니다

롯데홈쇼핑은 열린의사회와 함께 국내 소외계층과
해외 각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건강나눔, 모바일 롯데홈쇼핑 어플 다운으로 동참해주세요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를 통해 적립된 금액은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에 뜻깊게 쓰입니다

롯데홈쇼핑과 함께 부르는 '희망찬家'

건강나눔 의료봉사
마음을 모은 의료지원
열린의사회와 함께 국·내외 의료사각지역을 찾아 무료진료를 실시합니다

희망찬家 대학생 리더
희망찬家 대학생 리더의 젊은 열정들이 롯데홈쇼핑과 함께 더 큰 나눔을 실천합니다

사랑나눔 기부방송
함께 커가는 기부방송
사회적기업 상품의 판로확대 지원 및 방송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사랑을 더하는 기부방송
홈쇼핑의 전문성을 살려 방송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고객 참여형 기부 방송입니다



손바닥 만한 광고 하나 붙이는데 10억

디자인에서 경제적 가치까지

브라질 월드컵 태극전사 새 유니폼
호랑이·태극무늬 한국 전통미 표현
드라이핏 등 혁신기술 경기력 향상

프로야구 유니폼 광고 경쟁 치열
방송노출 10배 이상 마케팅 효과
삼성은 첼시 후원 후 유럽 매출 '쑥'

지난 14일 박지성이 전격 은퇴를 선언한 수원 박지성축구센터에는 그가 축구를 시작한 세류초등학교 시절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박지성이 입었던 유니폼들이 전시됐다. 그가 입었던 유니폼들은 그 자체로 박지성의 축구 인생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었다.

이처럼 유니폼은 해당 팀과 선수에게 단순한 옷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유니폼의 로고, 디자인에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논리가 숨어 있으며 유니폼의 디자인은 팀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 지표로 그 팀의 역사와 함께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니폼의 개발 및 진화는 기능적 측면을 넘어서 사회, 역사적 함축성을 고려해 진행된다.

나이키는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 2월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Match Jersey'를 공개했다.

실제 브라질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이다. 나이키 측은 "한국의 전통적 아름다움에 기반해 혁신 기술과 현대적 감각이 자연스럽게 조화된 유니폼이다. 음양의 상징 태극 무늬, 용맹한 호랑이와 갑옷을 입은 전사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브라질의 덥고 습한 기후에 대비해 땀과 열을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혁신 기술 드라이핏(DRI-FIT)을 적용했다. 체온이 높아지는 부분에 향상된 레이저 컷 통풍구와 엔지니어드 매시 소재를 적용해 통기성을 극대화했고, 등번호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 운동 시 땀 배출을 돕고 체온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3차원 보디 스캔 기술로 기능성을 강화했다. 또 상의 목 안쪽에는 전통 서체인 흘림체로 '투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대표팀의 각오를 엿볼 수 있다.

나이키는 "최근 공개된 FC바르셀로나의 상의 브이넥 부분에는 카탈루냐를 상징하는 '세니에라' 깃발이 새겨져 자긍심을 표현했다. 유니폼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정보를 안겨 준다"고 밝혔다.

유니폼이 디자인을 넘어 팀의 역사와 상징성을 안겨줄 수 있게 개발되는 동안 경제 논리도 뿌리 깊게 자리매김했다. 현재 국내 스포츠 중 관객 동원에 성공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야구의 경우 유니폼에 10cm 규격의 광고를 붙이는 데 10억원이 든다.

현대이노션 관계자는 "10억원을 투자해 100억원의 효과를 보는 것이 현 상황. 광고 경쟁은 정말 치열하다. 보통 유니폼의 경제학은 방송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상의 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폼의 가슴에 붙어 있는 기업이나 후원사의 로고는 이러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실제 삼성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구단 첼시의 유니폼에 자사 로고를 붙이고 있으며 유럽 지역 매출은 첼시 후원 전인 2004년 13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247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액정표시장치(LCD) TV 점유율도 2004년 유럽시장에서 4위였지만 3년 후에는 1위로 올라섰다.

최두선 기자 sun@

美 빙속영웅 발목 잡은 첨단 유니폼
라이벌 미녀 골퍼, 쌍둥이 옷에 머쓱

유니폼의 저주



"유니폼 때문에 망쳤다." 미국의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스타 샤니 데이비스(32)의 말이다.

CBS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지난 2월, 2014 소치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m 3연패 달성에 실패한 샤니 데이비스의 불만을 보도했다. 새로운 스케이팅 유니폼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 대표팀은 언더아머에서 제작한 유니폼을 입고 올림픽에 출전했다. 언더아머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함께 새로운 유니폼을 내놓았다.

마이크 플랜트 미국 스피드스케이팅협회장은 "언더아머가 제작한 새 유니폼은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낼 것을 자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수들은 달랐다. 올림픽 직전에야 유니폼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데이비스 등 미국 대표팀은 새 유니폼으로 실전을 치르지 않은 채 올림픽에 나섰다. 데이비스는 결국 1000m에서 8위, 1500m에서 11위에 그쳤다

데이비스는 경기 후 "새 유니폼은 1월 1일 전에 전달받고 실전에 나섰어야 했다"며 "새 유니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평가를 듣고 고칠 점을 찾았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유니폼으로 인해 뜻밖의 부진을 겪는 선수들이 적지 않다. '멘털 게임'으로 통하는 골프는 자신이 원하는 의류를 입고 출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포츠다. 정해진 유니폼이 없는 만큼 같은 날, 같은 조 선수와 같은 옷을 입고 출전하는 민망한 사태도 종종 일어난다. 선수가 어떤 옷을 입고 출전하겠다는 통보는 없기 때문이다.

여분의 옷을 준비한 선수는 그 자리에서 갈아입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민망함을 느끼며 플레이해야 한다. 특히 골프채보다 골프웨어에 더 민감한 여자프로골퍼들은 심리적 부담이 더하다.

흥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프로야구는 700만 관중시대에 접어들면서 선수들의 유니폼이 복잡해졌다. 모기업 계열사 중심의 광고가 대부분이던 선수 유니폼에 외부 기업 광고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두산(KB금융그룹·대화제약)·KIA(금호타이어)·롯데(넥슨)는 유니폼 광고를 외부에 개방, 선수 유니폼을 통해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책가방… 당구장… 갈비뼈…

태극 갑옷의 굴욕



유니폼은 팀의 상징이자 해당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의 유니폼이 공개될 때마다 축구 팬들은 물론, 전 국민이 유니폼의 색깔과 디자인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곤 한다.

지난 2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유니폼 공개 행사에서는 태극 문양의 갑옷을 형상화한 대표팀의 월드컵 유니폼이 공개됐다. 차이나 칼라와 어깨 이음선의 파란 띠가 추가된 새로운 유니폼에 홍명보 감독(45)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팬들은 "어깨선이 마치 책가방을 멘 것 같다", "차이나 칼라가 중국스럽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유니폼에 대한 팬들의 비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년에 한 번 바뀌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은 매번 화제를 모은 만큼 논란도 많았다.

1996년 공개된 유니폼은 붉은색 바탕에 태극 문양을 연상케 하는 물결이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어 일부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코카콜라 유니폼'이라고 불렀다. 2002년 공개된 유니폼은 가슴과 목 부분의 동심원 무늬 때문에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역대 최악의 유니폼 10에 이 유니폼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가장 말이 많았던 유니폼은 2004년 공개된 일명 '로또 유니폼', '당구장 유니폼'이다. 기존 유니폼보다 기능이 강화됐지만, 앞면 번호에 새겨진 동그라미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08년 올림픽 당시에는 자체 검열로 삭제당하기도 했다. 올림픽에서 착용하는 유니폼에는 협회 엠블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대한축구협회 엠블럼을 검은색으로 덧칠한 채로 이탈리아전에 나서 축구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코미디가 좋다”…‘개콘’의 성공 ‘해피선데이’서 재현



⑥⑤ PD 서수민

1999년 9월, KBS별관 스튜디오. 시청자에게 생소한 공개 코미디를 표방한 ‘개그콘서트’ 녹화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중 개그맨들, 박중민 PD와 이야기를 하며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한 여자 조연출, 서수민 PD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2012년 3월 18일 KBS ‘개그 콘서트-용감한 녀석들’에서 박성광은 “누굴까, 고구마 냄새? 방귀대장 서수민 PD”라며 웃음을 자아낸다. 서수민 PD 이름 자체가 웃음의 코드로 활용된다.

2014년 5월 25일 충남 논산군 상월면 KT&G 상상마당 아트홀. 300여명의 초중고, 대학생 학부모 등이 일제히 박수를 보낸다. ‘대담한 콘서트’에 참석한 ‘해피선데이’ 서수민 CP다.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것이 좋다. 예능 프로그램 PD로 일한 이후 다른 직군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KBS에서 프로그램 연출하는 것이 좋다.”





대학 때 연극활동…1995년 KBS 예능PD 첫발
‘개콘’ 전성시대 열며, 누구나 알아보는 ‘스타PD’
수많은 인기코너 만들고 신보라·김준현 등 배출
개그맨·작가·스태프 의견 녹여내는 능력 탁월
‘해피선데이’ CP 옮긴 후 ‘1박2일’ 시청률 껑충





KBS 서수민(42) 예능 PD를 읽을 수 있는 세 개의 풍경이다. 이제 ‘개그콘서트’ 등 KBS 예능 프로그램 시청자 상당수가 서수민 PD의 이름과 얼굴을 안다. 소위 말하는 스타 PD다. 서수민 PD는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정을 쏟아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실력과 노력을 드러내 성공을 일군 연출자다.

예능 프로그램 연출자 중 요즘은 여자 PD를 어렵지 않게 만나지만 1990년대만 해도 여자 연출자 그것도 예능 프로그램 연출자는 눈길을 끌 만큼 많지 않았다. 1995년 KBS 예능 PD로 첫발을 내디뎠다.

“연세대 재학시절 연극을 했다. 연극을 하며 살고 싶었지만 배고프다는 현실을 알고 고정적 월급이 나오는 방송사 PD 그것도 예능 PD에 지원했다. 운좋게 합격했다.” 대학 때 연극을 한 것이 예능 PD로 나선 이유란다.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직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잘 이겨냈다. 서수민 PD는 “처음 방송사에 왔는데 내가 남자 동료 PD처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였으니까. 일 잘한다는 말도 좋았지만 쟤는 남자처럼 일 잘한다라는 칭찬이 더 좋았다”며 웃는다.

음악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예능 프로그램을 맡아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서수민 PD의 강점은 뭐니 뭐니 해도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개그콘서트’ 초창기부터 박중민 PD와 함께 조연출로 참여해 초석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연출자로 ‘개그콘서트’를 이끌면서 ‘비상대책위원회’ 등 수많은 인기 코너를 만들고 신보라, 김준현 등 적지 않은 인기 개그맨을 배출했다.

“연극을 해서 그런지 코미디가 좋았다. 코미디는 정말 많은 사람을 웃기고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사실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능 프로그램의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지만 정말 재밌게 만들어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개그콘서트’뿐만 아니라 ‘개그 사냥’‘폭소 클럽’ 등 다른 개그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그는 신인들을 과감하게 기용해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고 문양이 다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에 소구하는 웃음을 선물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웃음을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젊은 세대가 웃을 수 있는 웃음의 코드도 필요하지만 어린이나 중장년층도 어렵지 않게 웃을 수 있는 코드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그 프로그램에서의 서수민 PD의 남다른 연출력은 개그맨, 작가, 스태프 등 작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물론 최종 결정은 서수민 PD가 내리지만 다양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연기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논의와 협의를 거친 다음 프로그램에 잘 녹여낸다. “작가와 연기자들에게 많이 의지한다. 나보다 더 많이 코미디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기 때문이다. 나는 큰 그림과 방향을 그린다.”

서수민 PD의 성공은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신선한 의견, 독창적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프로그램에 녹여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치열한 공부와 연구를 하게 되면 자칫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서수민 PD는 자신이 좋아하는 열정에 다년간 공부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에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공을 거둔 것이다.

개그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다. ‘개그콘서트’를 그만두고 위기에 몰린 ‘해피선데이’ 책임 연출자로 갔을 때 천하의 서수민도 고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서수민 PD는 ‘개콘’을 이끄는 방식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1박2일’을 시청률 1위 프로그램으로 단박에 올려놨다.

“고전하던 ‘1박2일’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유호진 PD와 멤버들과의 훌륭한 팀워크이자 협업의 결과다. 나 자신은 한 것이 없고 유호진 PD와 멤버들이 원없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뿐이다.”

PD 일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일하는 다른 엄마들처럼 늘 미안함을 갖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이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하는 서수민 PD. 그런 그를 보면서 그의 행보 자체가 한국 방송사의 기록이자 역사일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그리고 가장 인정받기 힘든 자녀의 인정마저도 획득한 성공한 어머니라는 생각도 갖게 된다.

대중문화전문기자 knbae@





'맏형' 배용준·열성적 팬덤… 한류 'Key' 쥐고 승승장구

연예산업 •파워를 찾아서

㉜ 키이스트

서울 강남의 삼성동 골목길, 큰 대로를 지나 길모퉁이를 따라 돌면 통유리로 된 7층짜리 빌딩이 눈에 들어온다. 해당 건물 6층 사무실 앞에는 알록달록한 나무 한그루가 서 있다. 일명 '메시지 나무'에는 좋아하는 배우를 향한 따뜻한 메시지 카드가 여기저기 열매처럼 매달려 있다. 육각형 모양마다 김현중의 사진이 담겨 있는 축구공도 시선을 끈다. 노란 돼지 저금통 안에는 종이학이 한가득 담겨 있다. 최근 중화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수현을 향한 팬들의 마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팬레터를 비롯해 예쁘게 꾸며진 액자 속 사진, 예쁜 꽃바구니 등 사무실 곳곳에 팬들의 애정이 묻어났다. 키이스트 사무실의 광경이다.

키이스트는 배용준, 김현중, 김수현 등 대표 한류스타와 최강희, 임수정, 정려원, 주지훈, 홍수현, 소이현, 왕지혜, 박수진, 조안, 김정욱, 박서준 등 약 30여 명의 스타들이 함께하는 매니지먼트사다. 키이스트는 2006년 3월 설립됐다. 키이스트의 전신은 배용준 1인 기획사인 BOF다. 2004년 배용준과 당시 배용준의 매니저이자 현 키이스트 매니지먼트 부문 양근환 대표, 현 키이스트 배성웅 총괄대표가 '우리만의 울타리를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의기투합해 회사를 만들었다. 이후 세 사람은 사업확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사인 오토윈테크를 인수해 키이스트로 사업명을 변경했고, BOF와 키이스트가 각각 사업을 해 나가다 2009년 키이스트로 흡수합병했다. 키이스트(Keyeast)는 영문 그대로 '동양의 열쇠가 한번 돼 보자'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인지 회사명처럼 키이스트는 설립 이래 승승장구하며 한류문화를 확장시키는 중심에 서 있다. 그 비결을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용준의 역할이다. 욘사마라 불리며 한류를 일으킨 배용준은 소속사 내에서 큰형 같은 존재로 통한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소속배우들, 경영진과 직접 의사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회사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강조하는 경영마인드도 한몫한다. 양근환 대표는 "모든 일에는 이유를 달아 오라고 한다. 어떤 행위를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한다"며 "목적의식이 정확해야 삶의 이유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의 소중함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결과는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한다"라고 그의 경영철학을 설명했다. 이에 약 70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정해진 일정한 틀 속에서 현장을 빠르게 읽고 이해하면

1인 기획사서 종합 연예기업 발돋움
김현중·최강희 등 30여명 한솥밥
日 콘텐츠 유통·한류 전문채널 개국
중화권 확장 목표…신인 발굴 주력
"팬들과 함께 할땐 수익도 포기"

서 소속 배우들과 함께 윈윈하며 높은 업무 만족도를 자랑한다. 이직률도 비교적 낮다.

키이스트는 이러한 회사 분위기 속에서 계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한류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한류 콘텐츠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콘텐츠 유통사업도 전개했다. 2008년 2월 일본 내 자회사 BOF 인터내셔널을 설립한데 이어 그해 8월에는 일본 내 한류 전문 쇼핑몰 '보피'를 오픈해 한류 관련 상품들을 판매했다. 2009년에는 일본 내 한류 엔터테인먼트 전문채널 DATV를 개국했고,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다.

국내 드라마 제작에도 가세했다. JYP와 드라마 합작 유한회사 '홀릭'을 설립해 드라마 '드림하이'를 제작했다. 배용준은 연예인 사관학교를 실제 만들고 싶어 박진영과 논의하던 중 '드라마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 생각에 두 회사가 손을 잡고 드라마 제작에 뛰어든 것이다. 해당 드라마는 시즌2까지 제작됐고 김수현, 수지, 아이유 등이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2012년 키이스트는 드라마 및 영화제작 사업 확대를 위해 드라마 제작사 콘텐츠K를 설립했다. 키이스트는 CJ E&M 드라마 본부장 출신인 최관용 대표를 영입해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울랄라 부부', '학교 2013', '비밀', '응급남녀', '신의 선물' 등 다수의 흥행작을 제작하며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나갔다.

중국드라마 제작도 하고 있다. 최근 한류를 다루는 12부작 예능형 다큐멘터리 중국 장쑤위성TV '대니간성성'을 제작해 중국에서 방송 중이다.

이와 같이 키이스트가 한류 콘텐츠 문화 확산에 강점을 가진 것은 한류 대표 주자 배용준의 한류를 바라보는 확고한 시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배용준은 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팬덤은 스타의 최대 지지세력이고 아군이자 힘든 일이 있을 때 지탱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힘이라 여긴다. 이러한 그의 마인드는 후배 연기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양 대표는 "팬과 함께할 때는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을 포기한다. 팬미팅 티켓 가격을 최대한 줄인다. 이게 배용준씨의 철학"이라며 "나 역시 팬들의 소중함과 사람의 중요함을 배우면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배용준의 해외 진출 노하우는 소속 연예인의 일본 및 아시아 진출에 있어 강점으로 작용했고 김현중, 김수현과 같은 제2, 제3의 한류스타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키이스트는 지난해 69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 1분기에는 매출 190억9900만원에 영업이익 2억3800만원을 기록했다.

키이스트는 향후 해외시장 확장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중화권 시장을 확장해 해외 콘텐츠 시장을 넓히고자 한다. 이에 콘텐츠K를 통해 국내외에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인 배우 발굴에도 주력한다. 공개 오디션을 비롯해 길거리 캐스팅,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인 발굴에 힘쓰고 있다.

김민정 기자 mj_kim@

인 터 뷰 양근환 대표

"아내 안목 덕에 김수현과 계약"

'욘사마 열풍' 다시 보는 느낌



"키이스트는 나의 전부다. 나의 역사이고 삶이다. 매니저는 라이선스(license·면허)가 없다. 1차적으로 배우에게 평가받는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다. 그렇기에 매니저를 하면서 오는 희열은 값을 매길 수 없다."

훤칠한 키에 구릿빛 피부,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중저음의 목소리로 투박하면서도 정감 넘치는 훈훈한 매력을 가진 매니저가 있다. 배용준과 15년 인연을 자랑하며 일명 '배용준 매니저'로 잘 알려진 그는 키이스트를 꾸려온 양근환 대표다. 양 대표는 25살에 매니저가 되기 위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산에서 상경했다. 그는 "연예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관심이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도 매력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도 나와 잘 맞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당시 영연엔터테인먼트에 입사했고, 배용준 팀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됐다. 배용준을 비롯해 현 키이스트 그룹사 대표인 배성웅씨를 만나게 된 것. 이후 30살이 되던 해 배성웅 대표와 양 대표, 배용준은 자신들을 위한 회사를 차리게 됐고 이것이 지금의 키이스트다.

양 대표는 배용준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접했다.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로 배용준 팬들의 사랑도 받았다. 그는 "팬들이 나를 배용준씨 대하듯 대해줬다. 일본에서 '겨울연가'로 한류 바람이 불 때 배용준씨가 스케줄 조율이 어려워 대신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며 "결혼식에도 팬들이 오셨다. 스타에게 팬덤은 힘이다. 최대의 지지세력이고 아군"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에게는 무한한 아군이자 든든한 지지자도 존재한다. 바로 그의 아내다. 최근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김수현을 알아본 당사자도 양 대표의 아내였다. 그는 "당시 김수현이 고수씨 아역으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라는 작품을 하고 있었다. 어느날 와이프가 정말 괜찮은 친구가 있다며 추천했다. 찾아보니 마음에 들었다"며 "수소문해서 김수현과 연락이 닿았고 전속 계약을 맺었다. 와이프 안목으로 인해 함께한 키이스트 식구들이 몇몇 있다"고 덧붙였다.

양 대표는 김수현에 대해 "배용준씨를 통해 약 10년 전에 경험했던 것을 김수현을 통해 느끼고 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대하는 법이 달라졌다"고 뜨거운 한류열풍을 입증했다.

양 대표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글/김민정·사진/노진환 기자 mj_kim@



7시·4시·5시… ‘예능감’ 더한 해설이 새벽잠 깨운다

6월 18일 러시아전 | 6월 23일 알제리전 | 6월 27일 벨기에전



지상파 월드컵 중계 ‘3파전’

2014 브라질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상파 3사는 월드컵 경기 중계진 라인업을 확정짓고 월드컵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에는 지난 2006년 독일월드컵 이후 8년 만에 지상파 3사가 공동 중계를 하게 돼 치열한 중계전쟁을 예고했다. 각 방송사가 어떤 차별화된 중계전략으로 대중성과 전문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박진감 넘치는 축구경기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까.

MBC ‘믿고 듣는’ 김성주 안정환·송종국 ‘공수 조합’

SBS 차범근 위원 ‘전문성’ 배성재 아나 입담도 기대

KBS ‘실전 경험’ 이영표 조우종 등 젊은아나와 호흡

MBC는 김성주 캐스터와 안정환·송종국 해설위원 3인 공동 중계체제로 나선다. 편안하고 안정적 중계로 평가받고 있는 김성주는 그간 월드컵 중계를 통해 국민 캐스터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지난 소치올림픽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며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이끌어낸 안정환과 송종국은 공격수와 수비수 출신의 조합으로 다양한 시각을 담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 사람 모두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아빠어디가’에 출연해 엉뚱하면서 솔직한 아빠의 면모를 드러내며 시청자에게 다가갔고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했다.

SBS는 차범근 해설위원과 배성재 아나운서가 또 한 번 호흡을 맞춘다. 차범근은 2002년부터 월드컵과 올림픽을 중심으로 축구해설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배성재와 중계 콤비로 활약했고 전문성 높은 중계라는 호평을 받았다.

배성재 아나운서 역시 SBS의 간판 스포츠 캐스터로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시작으로 K리그 클래식과 프리미어 리그 중계를 맡아 해박한 스포츠 지식과 맛깔스러운 진행으로 축구 전문 아나운서의 입지를 다져 왔다.

KBS는 이영표와 조우종 아나운서가 함께한다. KBS는 이용수 해설위원을 대신해 이영표를 메인 해설위원으로 내세웠다.

캐스터 역시 조우종, 최승돈, 이재후 등 젊은 아나운서를 포진시켜 큰 변화를 줬다. 특히 이영표와 조우종은 KBS 2TV 예능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축구 편’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고 실전 경험을 쌓으며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각 방송사는 대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 월드컵 열기에 가세해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도 전할 예정이다. MBC ‘무한도전’ 멤버들은 현지에서 축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를 보며 현지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KBS ‘우리동네 예체능’ 제작진과 출연진은 두 차례 브라질을 방문한다. 1차 방문 때는 현지인들과 친선경기를 펼치며 오는 6월 초로 예정된 2차 방문에는 한국전에 맞춰 출국해 응원에 힘을 더한다.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도 월드컵 특집을 준비 중이다. 2002년 4강 신화를 이룬 주역인 이운재가 최근 녹화를 마쳤다. SBS 관계자는 “브라질행은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TV·영화·뮤지컬 넘나드는 스타들


유준상


조승우


조정석


신성록

‘연기력’ 하나로 장르 무력화

‘프랑켄슈타인’ 유준상, 영화 ‘표적’ 칸行
티켓파워 조승우 ‘신의선물’ 안방나들이
‘관상’ ‘역린’ 찍은 조정석, 공연계 롤모델
‘별그대’ 소시오패스 신성록 ‘태양왕’ 주연

뮤지컬과 스크린, TV브라운관 등 다양한 장르를 종횡무진하는 배우들이 저력을 과시하며 두드러진 활약을 펼쳐 보이고 있다. 조승우, 유준상, 조정석, 신성록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칸 영화제를 빛내며 국내 대표 배우로 우뚝 선 유준상.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표적’은 해외영화제 진출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누적 관객 수 300만명에 근접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19일 칸으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유준상은 18일 2개월간의 공연 여정을 마무리하는 창작뮤지컬 ‘프랑켄슈타인’ 폐막 공연을 열정으로 수놓았기 때문이다. 해외 작품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블록버스터로 창작뮤지컬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흥행한 ‘프랑켄슈타인’에서 타이틀 롤을 맡으며 대극장 1200석을 휘어잡은 그였다.

앞서 KBS 2TV 드라마 ‘넝굴째 굴러온 당신’(2012)으로 ‘국민 남편’에 등극한 것은 물론, 대극장 뮤지컬 ‘레베카’(2013)에서 적격의 연기력을 선보인 바 있는 유준상은 뮤지컬 ‘삼총사’(2014), 영화 ‘전설의 주먹’ 등의 활동으로 꾸준히 관객과 만났다.

유준상의 아내 홍은희는 최근 인터뷰에서 “공연과 영화, 드라마까지 1년에 말도 안 되는 양의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은 “무대 위 그를 보면 누구보다도 무대를 사랑하고 즐기면서 임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연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유준상의 큰 강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MBC 드라마 ‘마의’ 이후 조승우는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신의 선물-14일’을 통해 1년 만에 TV브라운관에 복귀해 시청자와 만났다. 자연스러운 연기와 높은 몰입도를 통해 드라마 ‘신의 선물’에서 탁월한 긴장감을 자아낸 조승우는 최근 공연 무대에서 성적 소수자로 분해 분노를 한껏 표출하고 있다.

뮤지컬 ‘헤드윅’의 타이틀 롤로 그간 국내 공연계의 기념비적 티켓 판매 행진을 발휘해온 조승우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헤드윅’ 무대에 다시 선 그는 카리스마와 특유의 재치를 뽐어내며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영화 ‘건축학개론’(2012)을 통해 개성 있는 매력을 대중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킨 조정석은 그간 MBC 드라마 ‘더 킹 투 하츠’(2012), KBS 2TV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2013)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당당히 주연으로 발돋움했다. 최근 조정석의 행보는 스크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관상’을 통해 캐릭터 변신에 성공해 호평을 이끌어낸 바 있는 조정석은 영화 ‘역린’에서 연민을 자아내는 한편 살기등등한 왕의 암살자인 악역을 맡아 존재감을 과시한 것.

앞서 2006년, 2008년, 2011년 총 세 번에 걸쳐 뮤지컬 ‘헤드윅’을 통해 다수의 공연 팬을 확보한 조정석은 내달 개막하는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를 택해 대학로 무대로 돌아온다.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입지를 다지고 있는 조정석의 행보다. 조정석은 인터뷰에서 “공연계 선배들이 영화계에 진출한 저를 두고 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라며 책임감을 가지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파격적 소시오패스 연기를 선보였던 신성록은 최근 뮤지컬 ‘태양왕’의 타이틀 롤로 안재욱과 더블 캐스팅돼 루이 14세로 분했다. 신성록 역시 뮤지컬 ‘카르멘’(2013), ‘몬테크리스토’(2011) 등 다양한 공연 무대에 서며 역량을 쌓아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진화하는 '괴력남' 박병호 이승엽 신기록 넘을까

〈2003년 홈런 56개〉

신들린 타격감으로 홈런 19개 독주
11년 만에 50홈런 달성 기대 높아
무더위·장마철 타격감 유지가 관건

박병호(28·넥센 히어로즈)의 괴력이 연일 화제다.

박병호는 27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4시즌 한국야쿠르트 세븐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2홈런을 몰아치며 이 부문 단독선두(19개)를 지켰다.

박병호는 1회말 상대 선발투수 조조 레이예스(30)의 초구(128㎞)를 받아 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115m짜리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5회 1사 3루 상황에서는 레이예스의 초구(135㎞)를 노려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홈런(비거리 125m)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박병호는 시즌 18·19호 홈런을 작렬하며 신들린 타격 감각을 이어갔다. 27일 기준 44경기를 치른 넥센은 앞으로 84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55~56개는 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병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올해 레이예스와 첫 상대였는데 집중력을 발휘한 것이 주효했다. 오늘을 계기로 선수들 모두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병호는 "홈런 기록에 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박병호의 홈런 레이스는 경이롭다. 한·미·일 3국 프로야구를 통틀어 19개의 홈런을 친 선수는 박병호뿐이기 때문이다. 또 37개의 홈런을 친 지난해 5월은 9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데 그친 반면 올해는 2배 이상의 홈런을 쳐내고 있다. 타격 감각이 절정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박병호는 27일 경기에서 레이예스의 유인구가 낮게 제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중심에 맞추며 홈런을 만들어냈다. 강력한 파워에 정교함까지 더해졌다는 증거다.

박병호의 홈런 독주는 시즌 전부터 예고됐다. 2012년 31개에 이어 지난해에는 37개를 쳐내 2년 연속 홈런왕에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 프로야구 홈런 신기록은 지난 2003년 이승엽(39·삼성 라이온즈)이 기록한 56호다. 이 페이스라면 신기록까지는 아니라도 11년 만의 50홈런 달성은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타자들도 박병호의 물오른 타격감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브렛 필(30)은 "박병호는 좋은 타자다. 그의 힘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 같다. 타구를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보내는 것이 인상적이다. 타격 밸런스도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박병호의 홈런 신기록 도전에 대해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승엽은 지난 2003년 56홈런을 기록할 당시 40경기 만에 19호 홈런을 때려냈다. 박병호보다 4경기 빨라 힘겨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팀당 경기 수도 적다. 2003년은 8개 팀이 팀당 133경기를 소화한 반면 올해는 9개 팀이 팀당 128경기를 치른다.

하일성 KBS N 스포츠 야구해설위원은 "무엇보다 체력관리가 관건이다. 한여름 무더위와 장마철 경기 취소 시 타격감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타격감 유지와 체력관리가 박병호의 홈런 레이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상민 기자 golf5@

한국 축구 빛낸 최고의 ★은 차범근

英 스포츠 전문매체 '역대 톱10' 선정
2위에 박지성…홍명보·이운재 뒤이어



역대 최고의 한국 축구선수는 누굴까.

영국의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몰(SportsMOLE)은 '역대 한국 축구를 빛낸 최고의 선수 10명'을 최근 발표, 차범근 SBS 축구 해설위원(61)을 최고의 한국 축구선수 1위로 선정했다.

스포츠몰은 아시아 최초로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을 조명하면서 한국 역대 최고 축구선수 1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축구선수 명단에는 박지성(33)과 홍명보(45), 이운재(41), 이영표(37), 황선홍(46)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자리했다.

스포츠몰이 선정한 최고의 선수 1위에 오른 차범근은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IFFHS)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린 바 있다. '차붐'이라 불리며 10년간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를 호령하던 차범근을 1위로 선정한 스포츠몰은 "차범근은 한국에서 특별한 인물이다. 1972년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돼 A매치 121경기에서 55골을 기록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에서 10년간 뛰면서 308경기 98골을 기록했고, UEFA컵 우승을 두 번이나 차지했다. 차범근의 활약은 한국 선수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면서 독일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인 차범근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2위에는 최근 현역 은퇴를 선언한 박지성의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축구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해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박지성은 4번의 프리미어리그와 3번의 리그컵 우승에 힘을 보탰다. 스포츠몰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라면서 "월드컵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3개 대회 연속 골을 기록했다"고 박지성의 활약을 전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4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한 홍명보는 3위에 꼽혔다. 스포츠몰은 "2002 한일월드컵 4강전에서 홍명보보다 더 인상적인 축구선수는 없었다"면서 "그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브론즈볼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위를 기록한 이운재는 골키퍼로서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영표는 이운재의 뒤를 이어 5위에 선정됐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오상민의 스포츠 인물사

미니스커트 고집하는 '미녀골퍼' 김하늘
순수 국내파…실력 겸비한 '흥행의 여신'


지난 25일 강원 춘천 라데나GC에서 열린 2014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김하늘이 3번홀 퍼팅라인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여자프로골프 대회장이 술렁였다. 연장 두 번째 홀에서 김하늘(26·비씨카드)의 티샷 볼이 숲 깊숙한 곳에 박혔기 때문이다. OB(아웃오브바운드)다. 20홀의 팽팽했던 긴장감은 거기까지였다. 승리의 여신은 김하늘을 외면하는 듯했다.

지난 25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풍경이다. 김하늘은 결승 진출 문턱에서 허윤경(24·SBI저축은행)을 만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김하늘은 그린 주변 칩샷을 거짓말처럼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갤러리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피를 말리는 연장 승부는 결국 김하늘의 드라마틱한 승리로 끝났다. 김하늘의 집중력이 빛난 한 판이었다. 김하늘의 일거수 일투족에 집중하던 갤러리들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했다.

김하늘은 늘 많은 갤러리를 몰고 다닌다. 한국 프로골프사의 '흥행의 여신'을 꼽는다면 단연 김하늘이다. 해외 투어에 진출하지 않은 순수 국내파로서 김하늘만큼 유명세를 탄 선수는 없다. 무엇보다 KLPGA투어 흥행의 주역이다. 김하늘이 프로 데뷔한 2006년만 해도 후원 기업은 많지 않았다. 하이마트, 하이트, CJ, KTF 등 일부 대기업의 특정 선수 후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김하늘의 프로 데뷔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비씨카드, KB금융그룹, 미래에셋, 롯데, 우리투자증권 등에서 본격적 프로골퍼 마케팅을 시작했다. 덕분에 대회 수도 크게 늘었다. 2004년 10개 대회에서 올해는 27개 대회가 치러진다. 최대 4억원(2004년)이던 총상금도 올해는 최소 5억원 규모다.

그렇다면 KLPGA투어 흥행과 김하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김하늘은 2007년 프로 데뷔 이후 줄곧 '미녀 골퍼'로 불리며 수많은 갤러리를 필드로 불러들였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짧은 치마다. 사실 골프 대회장에서의 미니스커트는 김하늘이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는 반바지나 무릎까지 내려오는 투박한 치마 패션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김하늘 이후 필드의 미니스커트 패션은 급속히 확산됐고, 그것이 여자프로골프 흥행으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그에게 미니스커트를 제안한 사람이 아버지 김종현(51)씨라는 점이다. 김씨는 딸(김하늘)에게 '이왕이면 시원시원하고 보기 좋게 짧은 치마를 입는 게 어떠냐'고 권했고, 김하늘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하늘의 미녀 골퍼 수식어가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실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김하늘은 통산 8승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2년 연속 상금왕에 올랐다. 슬럼프도 있었지만 8년 동안 정상급 기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이다. 사소하지만 짧은 치마도 자기계발에서 비롯됐다. 무엇보다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선수다. 바로 그것이 수많은 갤러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오상민 기자 golf5@

JANDIRO SPORTS
내리막 미끌림에 강하다!
잔디로 브레이크 등산화!
교체형 스파이크를 부착한 등산화 출시!
NEW 2014 WATER PROOF LEATHER CHAMP
2014 브레이크 등산화는 아웃솔 전면부에 4개의 교체형 스파이크를 장착하여 어떠한 조건에서도 미끌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브레이크 등산화 SM2442(오렌지) SM2440(카키)
판매가: ₩210,000원 ► ₩168,000원



SU2437/SM2436 ₩78,000원
SW2433/SM2432 ₩68,000원
SM2434/SU2435 ₩78,000원
SU2430/SU2431 ₩68,000원
판매점 모집 02)2690-9002
www.jandiro.com | 문의: 02)6909-8834 | 목동점: 02)2608-7400
(주)잔디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875-4 잔디로빌딩 소비자상담실 02)542-2000



(주)데니스 www.dennisgolf.co.kr | www.dennismall.co.kr | 02-3481-2250



인간은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았다

20억년 세월이 빚은 걸작

그랜드캐니언

그랜드캐니언은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억 년 전 콜로라도강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 미국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랜드캐니언은 길이 447㎞, 너비 6~30㎞, 깊이 1500m의 웅장함을 자랑한다. 그리고 사우스 림, 노스 림 등과 함께 이동하는 중간중간 여러 개의 유명한 뷰포인트가 있어 숨막히게 아름답고 장엄한 경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또한 63빌딩 6배에 달하는 높이의 겹겹이 쌓인 지층은 지질학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나 '지질학의 교과서'라 칭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랜드캐니언은 단순한 자연의 장엄함과 스펙터클한 풍경 그 이상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삶은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성찰의 시간인 것이다. 그랜드캐니언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막상 눈앞에 펼쳐진 풍광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무려 1500m 아래 절벽 사이를 흐르고 있는 콜로라도강 또한 질은 청록색 빛을 뽐내며 굳건히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민에 휩싸이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에 인생을 던질 것처럼 흥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소 허풍스러운 꿈인 것을 알면서도 이 지구에 어떤 족적을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러나 그랜드캐니언을 보고 난 지금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달았다. 인간은 광활한 대자연 앞에선 한낱 띠끌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어떻게 그랜드캐니언보다 더 멋진 족적을 남길 수 있을까. 그만큼 그랜드캐니언이 가져다 준 인상은 강렬했다.

그랜드캐니언을 보고 난 지금 신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가장 좋은 카메라로, 렌즈로 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랜드캐니언이 지닌 엄청난 대자연의 모습을 100분의 1도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존재가 20억년 장대한 시간 앞에 하염없이 작아졌다.

애리조나(미국)=장세영 기자 photothink@

"코넥스 성장하려면 예탁금 규정 완화해야"

〈개인투자자 3억〉



2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합동IR'에서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코넥스 상장법인 대표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합동 기업 설명회

상장기업 개설 당시 21곳서 51곳으로…시총 1조 돌파

유동주식수 부족·개인투자자 참여제한에 거래 부진

"예탁금 3억원 규정을 완화해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시급합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합동 기업 설명회(IR)가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장 이후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코넥스 상장법인 50개사는 일제히 시장활성화를 위해선 규제를 완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장기업 51개… 시가총액 1조원 돌파 =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은 초기 21개사에 불과했던 상장기업수가 51개사로 증가했다. 시가총액도 최근 1조원을 돌파하며 개설 당시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40%가량 줄어들고 특정종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예탁금 한도를 낮춰 개인투자자들이 많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3억원 이상 예탁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이진우 하이로닉 대표이사는 "개인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 하는 게 필요하다"며 "코넥스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데 3억원이 없어 포기했다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김군호 에프앤가이드 대표 또한 "3억원 예탁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투자가능 금액을 낮춰주지 않는데 대해 업체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넥스 시장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유동주식수 부족과 개인투자자의 참여 제한에 따른 거래 부진 현상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투자자 미팅도 '빈익빈 부익부' = 코넥스 기업들은 이날 배정된 부스에서 소그룹 미팅을 진행하며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증권사와 벤처캐피털, 자산운용사 등의 투자자 100여명이 현장을 찾아 소그룹 미팅에 참석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아이진, 금오하이텍 등 7개사의 기업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상장사와 투자자의 소규모 미팅은 '최대 규모 코넥스 합동 IR'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코넥스 시장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 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소그룹 미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넥스 시장이 상위 그룹사를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현저히 적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듯 이날 미팅 현장에서도 상장법인간의 미팅 횟수의 차이가 컸다. 하이로닉 등 코넥스 시장 시가총액 상위사들은 10여명의 투자자가 미팅을 요청한 반면, 시장 내 거래량이 적은 회사는 단 2곳의 미팅만 진행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7월 코넥스종합지수 나온다

거래소, 시총 가중방식 산출

지수 레벨 1000 전후 예상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 시장의 종합대표지수인 코넥스종합지수가 오는 7월부터 선보인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7월 코넥스 시장의 종합대표지수인 '코넥스종합지수(가칭)'를 발표할 계획이다. 코넥스종합지수는 코스피·코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되며, 지수 레벨은 대략 1000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넥스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인덱스가 발표되면, 개별 종목만을 살펴봐야 했던 과거보다 코넥스 시장의 수익률을 측정·비교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넥스 시장에 대한 증권업계의 분석이 늘어나고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뿐만 아니라 코넥스종합지수를 활용한 금융상품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라성채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장은 "코넥스 시장 출범 직후에는 상장사 수가 많지 않았고, 일부 종목은 상·하한가 발생 빈도도 높아 지수를 개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종합대표지수를 낼 수 있을 만큼 코넥스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코넥스 시장의 상장사 수가 올 들어 50곳을 넘어서자 거래소가 코넥스종합지수 산출 작업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코넥스 시장의 상장사는 모두 51곳으로 지난 1월과 2월에 3곳이 새롭게 상장했지만, 3월에는 신규 상장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프렉코·씨아이에스·에스와이이노베이션 등 3곳이 한꺼번에 상장, 50곳을 넘어서게 됐다. 상장사 수가 50개를 넘어서자 이들 상장사들은 이달 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코넥스협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하나대투증권 해외선물 이벤트

현금 캐시백·상품권 등 제공

하나대투증권(사장 장승철)은 6월 한달 동안 3가지 해외선물 이벤트를 진행한다. 'Welcome 신규고객 이벤트'는 해외선물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고객를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내에 해외선물(CME 상품)을 1계약 이상 거래할 경우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Thank You 거래감사 이벤트'는 해외선물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내에 해외선물 5계약(Micro는 50계약) 체결당 1000원의 현금 캐시백을 제공한다. 1인당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다.

'Come Back 휴먼고객 이벤트'는 1개월 이상 매매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내에 해외선물 1계약(Micro는 10계약) 이상 매매를 재개한 경우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하나대투증권은 해외선물 고객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에 해외선물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해외선물 기초, 해외선물 매매기법과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하나대투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황윤주 기자 hyj@



현대증권 "여의도 사옥 팝니다"

매각 후 세드는 '세일 앤 리스백'

현대증권이 서울 여의도 사옥 매각에 나섰다. 29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위치한 현대증권빌딩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매각 대금은 800억원선으로 장부가보다 15% 가량 더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건물을 판 뒤 해당 건물에 세드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 방식을 활용, 현재 건물에 5년 정도 더 머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의 사옥 매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옥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면 경영권 매각시 가격 협상에 유리하다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한전KPS 등 7곳 코스피200 편입

내달 13일부터 변경

KRX100도 7종목 교체

코스피200에 포함된 종목 중 7종목이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스피200, KRX100, 프리미어지수, 스타지수 등 시장지수 7개의 구성종목을 내달 13일 변경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코스피200은 이번 정기 변경에서 건설업 1종목, 제조업 6종목이 교체된다. 교체종목 수는 최근 박스권 장세로 시가총액 변동이 크지 않아 전년과 동일하다.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한전KPS △한국타이어 △동아에스티 △한국콜마 △삼립식품 △서흥 △광동제약이다.

시가총액이 줄어 코스피200 지수 종목에서 제외되는 곳은 △GS건설 △코스맥스비티아이 △한올바이오파마 △파미셀 △종근당홀딩스 △웅진에너지다. 거래대금을 이유로 제외되는 종목은 KPX케미칼이다.

변경 후 전체 구성종목의 평균 시가총액은 5조원, 평균 거래대금은 156억원 수준이다. 코스피 커버리지는 약 91%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정기변경 후 구성종목의 시장대표성 및 유동성 개선으로 지수 상품성이 제고돼 선물·옵션 및 관련 금융상품(ETF 등)의 기초자산인 코스피200 지수의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KRX100은 현대위아 등 유가증권시장 7종목이 신규 편입된다. 프리미어지수는 17종목, 스타지수는 6종목이 교체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을 용기, 당신에게는 있는가?"

말 못 할 콤플렉스와 우울로
인생이 괴로운 사람을 위한 자존감의 심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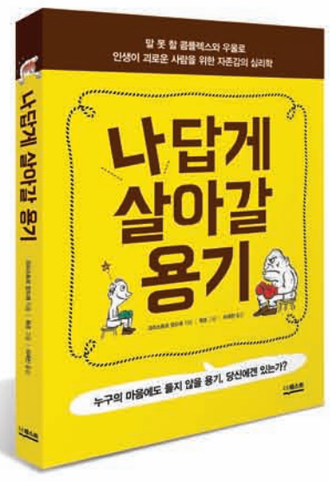
나답게 살아갈 용기

Je Depasse Mes complexes et mes deprimes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거절 못하는 나, 줏대 없는 당신, 남의 인정에 연연하는 우리...
콤플렉스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회복 매뉴얼

◉ 늘 할 말을 못해 당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위한 자존감 따라잡기 ◉
◉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예민한 현대인을 위한 불안감 떨쳐내기 ◉
◉ 열등감 조장하는 사회에서 생긴 대로 살기 위한 자기사랑의 기술 ◉
◉ 스트레스로 우울하고 우울해서 스트레스 받는 '기분부전증' 해소법 ◉



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음 | 뮈조 그림
이세진 옮김 | 더퀘스트 | 값 12,000원

문의 : 02-332-0931

안전과 초과수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고수들의 필살기, '권리분석'

저는 부동산 경매가 처음인데요! 권리분석 완전정복 2

경매 고수 신정헌의 초베스트셀러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 2탄!
레알 생초보의 권리분석 실전편

내 집 마련부터 수익형 부동산까지, 경매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극적인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권리분석이 까다롭거나 복잡하면 그만큼 경쟁자가 줄어들고,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2》는 고수들의 치밀한 권리분석 노하우를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려준다. 또한 독자들이 배운 지식을 당장 적용해볼 수 있도록 실전문제를 통해 복습하고, 고수들의 Q&A를 통해 경매의 숨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신정헌 지음 | 한빛비즈 | 416쪽 | 값 18,500원

문의 : 02-2128-8775

제 24차 경제경영 연합광고 캠페인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완판예감’ LG전자, 회사채 발행규모 2배로

수요예측 흥행에 6000억으로 증액… 자재구매·용역대금 결제에 사용

LG전자가 당초보다 2배나 증액한 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0억원 규모의 5년물 회사채와 1300억원 규모의 7년물, 2100억원의 10년물, 600억원 규모의 15년물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초 LG전자는 3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5년물과 7년물 각각 1000억원, 10년물과 15년물 각각 700억원과 300억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실시한 총 3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 결과 흥행에 성공하며 채권 발행액을 증액한 것이다.

수요예측 시 총 발행 예정금액의 3배에 이르는 830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5년물에는 3배가 넘는 3600억원의 주문이 몰렸고 7년물에도 1800억원의 주문이 접수됐다.

10년물과 15년물 등 장기물도 수요예측 조사 당시 투자 수요가 많았다.

특히 15년물에도 300억원 모집에 600억원의 주문이 몰렸다. 15년물 회사채는 공사채 등 최고 신용등급 기관도 발행이 어렵다. 이에 회사채에서 15년물을 발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SK텔레콤 또한 15년물 1000억원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1년 후부터 매년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조건 없이 15년물 발행에 성공했다.



LG전자 주가 추이 단위: 원



LG전자는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중 1027억원을 오는 8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변동금리부 외화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4300억원은 자재구매 및 용역대금 결제에 쓰인다.

또한 평택산업단지 토지매입을 위해 900억원을 사용한다. 평택산업단지 토지는 내년 취득 예정이고 총 투자규모는 3000억원이다. LG전자는 이 산업단지에 산업용 냉동공조설비, 조명산업 등 미래신수종산업과 고부가가치 전자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LG전자의 장기 회사채 발행 성공으로 우량 장기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공시돋보기

돈 안되는 400만주 워런트 6억에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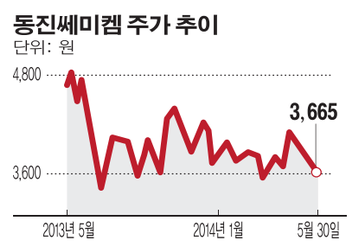
이익보다 지분 택한 동진쎄미켐

동진쎄미켐이 400만주에 달하는 신주인수권(워런트)를 사들였다. 현주가와 워런트 행사가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의 지분확보와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진쎄미켐의 최대주주인 동진쎄미켐홀딩스는 지난 26일 워런트 396만7204주를 주당 151원에 취득했다. 지난해 말 발행주식총수 대비 9.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매입에 들어간 돈은 총 6억원이다. 워런트 행사 가능 기간은 2014년 5월24일부터 2018년 5월24일까지, 워런트 행사가는 3781원이다.

이 워런트는 2013년 5월 동진쎄미켐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부다. 당시 ‘IBK-SKS중소중견글로벌투자파트너쉽’과‘KoFC-SK협력사동반성장제3호’가 각각 200억원, 100억원씩 인수해 갔다. 이들은 SK그룹 협력사 투자에 특화된 목적펀드로 동진쎄미켐은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용 포토레지스트 양산에 성공하는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300억원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동진쎄미켐 주가 추이
단위: 원



워런트 행사일 시작 직후 최대주주가 워런트를 사들인 것은 현재 주가가 워런트 행사가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분 확보와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이해관계가 부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년간 동진쎄미켐 주가는 작년 5월 BW 발행 직후(4700원) 하락하기 시작해 한 달 만에 25% 이상 빠지며 하락세를 보이다 이내 반등했지만 올 초부터는 3500~3900원대를 오르내리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동진쎄미켐 관계자는 “동진쎄미켐홀딩스가 지주회사다 보니 지분 확보차원에서 매입 했다. 당장 워런트를 행사할 거면 장내매수가 유리했겠지만 이 워런트는 보유하고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890억 언제… 매각대금 기다리는 한국화장품

하나리츠 자금모집 완료 안 돼
4월→5월→7월 두 차례나 연기

한국화장품이 매각하기로 한 본사 서린빌딩과 관련 인수자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매각 대금지불 날짜를 두 차례나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정 공시를 통해 하나에셋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맺은 자산양수도 계약을 오는 7월1일로 연기했다.

한국화장품은 올해 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서울 청계천로에 있는 본사 서린빌딩 토지 및 건물 지분 56.16%를 89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화장품이 인적분할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평균 매출액 394억원보다 2배이상 많은 규모다. 쥬단학, 칼리, 템테이션, 효움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화장품 업체간의 경쟁 속에서 히트브랜드를 내지 못 하고 실적 부진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나위탁관리리츠는 지난 3월 자산양수도 계약을 맺으면서 4월18일 대금을 치르기로 했다.



한국화장품 주가 추이 단위: 원



계약 완료일이 되자 한국화장품이 정정 공시를 내고 매매 완료 예정일을 5월30일로 미뤘다. 그런데 변경된 계약 완료일을 하루 앞두고 다시 처분 예정일을 오는 7월1일로 미룬 것이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하나에셋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자금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이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리츠가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거래 대금을 한 번에 다 내야 한다.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처럼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수 차례에 걸쳐 잔금을 치르는 것보다 부담이 더 크다.

거래 규모가 1000억원에 가깝고, 투자금 마련도 한 달 안에 이뤄져야하다보니 계약이 연기됐다는 것이다. 자금 모집이 크게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오는 7월에는 서린빌딩 매각이 완료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나자산신탁측은 “투자금이 모자라서 연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리츠가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통상 2개월의 기간을 잡는데 이번에 일정 자체가 타이트해 단순 조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화장품은 지난 2010년 4월 한국화장품제조에서 화장품판매 및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했다. 한국화장품제조가 지분 20%로 최대주주이며, 임충헌 이사 11.5%, 김숙자 이사 11.2% 등 특수관계인이 55.95%를 갖고 있다.

2010년 매출액 320억원, 2011년 505억원, 2012년 393억원, 2013년 358억원으로 감소추세며,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40억원, 30억원, 72억원, 25억원으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황윤주 기자 hyj@

애강리메텍 대표, 태광실업에 BW도 넘겼다

태광 지분 45% 확보하며 최대주주 자리 다져

애강리메텍 대표이사가 태광실업에 자신이 보유중이던 신주인수권(BW) 전량을 넘겼다. 이에 따라 태광실업은 애강리메텍 지분 45%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

30일 애강리메텍 양찬모 대표는 보유중인 주식 539만2952주(17.81%) 가운데 BW 104만8951주를 내달 1일 태광실업에 양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대표의 보유주식 수는 434만4001주(14.35%)로 줄어든다. 해당 BW의 행사가액은 1430원, 행사기한은 오는 11월 11일까지다.

앞선 22일 애강리메텍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태광실업을 대상으로 신주 2046만3338주를 발행하는 2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1370원, 납입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애강리메텍은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인 7월 1일 자사주 130만5202주를 주당 1370원에 태광실업에 장외매각하는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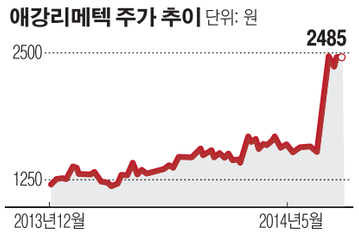
이에 따라 애강리메텍에 대한 태광실업의 지분율은 유상증자·자사주 매입 후 43.8%(2176만8540주)에서 BW 매입으로 45%(2281마7491주)까지 확대됐다.

애강리메텍에 대한 태광실업의 통 큰 투자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태광실업은 지난 2012년 지분 37.53%를 보유한 휴켐스를 통해 애강리메텍의 자회사인 일렘테크놀로지를 299억원에 인수했다. 이번에는 모회사인 애강리메텍의 28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 것이다.

휴켐스는 질산과 암모니아 등 정밀화학소재 생산업체이고, 일렘테크는 배관재 원료인 폴리부텐-1을 생산하는 업체다. 애강리메텍은 급수·급탕용 및 난방용 파이프 등 배관재를 생산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태광실업은 휴켐스를 통한 일렘테크 인수에 이어 애강리메텍의 최대주주에까지 오름에 따라 사실상 화학 소재, 원료, 원자재 제조와 판매 등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된 것”이라며 “애강리메텍이 가지고 있는 중국 유통망과 태광실업이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 등 신흥국 유통망이 접목되며 해외 사업에서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강리메텍 주가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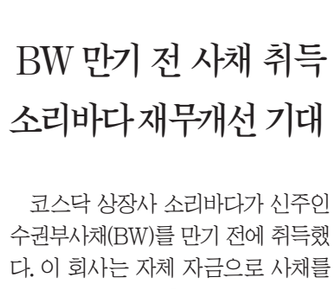


한편 애강리메텍 최대주주에 오른 태광실업은 국내 최대 신발제조업체로 박연차 회장이 대주주다. 태광실업은 지난해 11월 대우인터내셔널 부산공장을 인수했고, 지난 16일에는 한국남동발전 자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김미정 기자 mjk@



소리바다 주가 추이
단위: 원



BW 만기 전 사채 취득
소리바다 재무개선 기대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 이 회사는 자체 자금으로 사채를 전량 매입 후 소각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전날 제9회차 BW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Put Option)이 행사됨에 따라 장외 매수를 통해 자기자금으로 BW 전량을 취득했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 전날 최초로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게 됐는데, 사채권자들이 이를 행사한 것이다.

이번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만기 전 취득으로 사채권(Bond)은 소각할 예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풋옵션 행사 가능 기간이 최초로 도래하자 BW 발행 당시 투자한 기관들이 이를 행사한 것”이라며 “BW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통해 이자 비용이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소리바다는 2012년 11월28일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60억원 규모의 이 분리형 BW를 신한캐피탈,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에 발행했다.

당시 소리바다 최대주주인 양선정 환씨와 그 특수관계인인 양일환씨 그리고 손지현씨가 36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주당 109원, 총 1억8000만원을 들여 다시 되샀다. 워런트 행사기간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였는데, BW에 참여한 기관 중 2곳이 이날이 도래하자 16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96만384주에 대한 워런트 행사했다.

회사 관계자는 “워런트의 경우 한 곳의 기관이 아직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최대주주 측도 현재로서는 워런트를 행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진원생명과학 ‘오송R&D 대상’

진원생명과학(舊 VGX인터)은 29일 ‘2014 대한민국 건강산업대상’에서‘오송 R&D 대상’을 수상했다.박영근 대표는 “차세대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DNA백신의 꾸준한 국내 임상개발로 바이오 신약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오송R&D 대상을 수상해 기쁘다”고 말했다.

코렌, 노키아·소니 카메라와 ‘눈맞춤’

렌즈개발 돌입… 연내 양산 가능

휴대폰 카메라 렌즈 생산업체 코렌이 연내 해외 고객사 매출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에 들어가는 렌즈 개발에 돌입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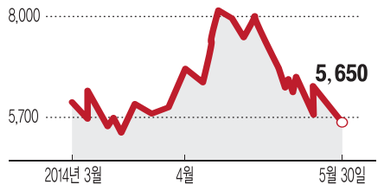
30일 코렌 관계자는 “노키아, 소니에릭슨 및 모토롤라 용 카메라 모듈 업체에 회사 제품을 채택시키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주요 카메라 모듈 업체들과 함께 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 후 제품 주문을 받으면 연내에도 바로 양산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렌은 지난 2009년부터는 중국 및 일본, 유럽 지역에 있는 카메라모듈 패키징 업체들을 개척하고 있다. 이미 중국의 트룰리(Truly), 라이트온(Lite-on) 등에 렌즈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 비중이 95%를 넘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기존 국내 고객사에 대한 시장을 유지하면서 해외 매출처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박기홍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고객사의 1600만 화소 카메라 렌즈 설계 난이도가 높아져 렌즈 공급업체들은 수율 상승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면 코렌은 렌즈 금형 내재화를 통해 경쟁사대비 초기 수율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물량 확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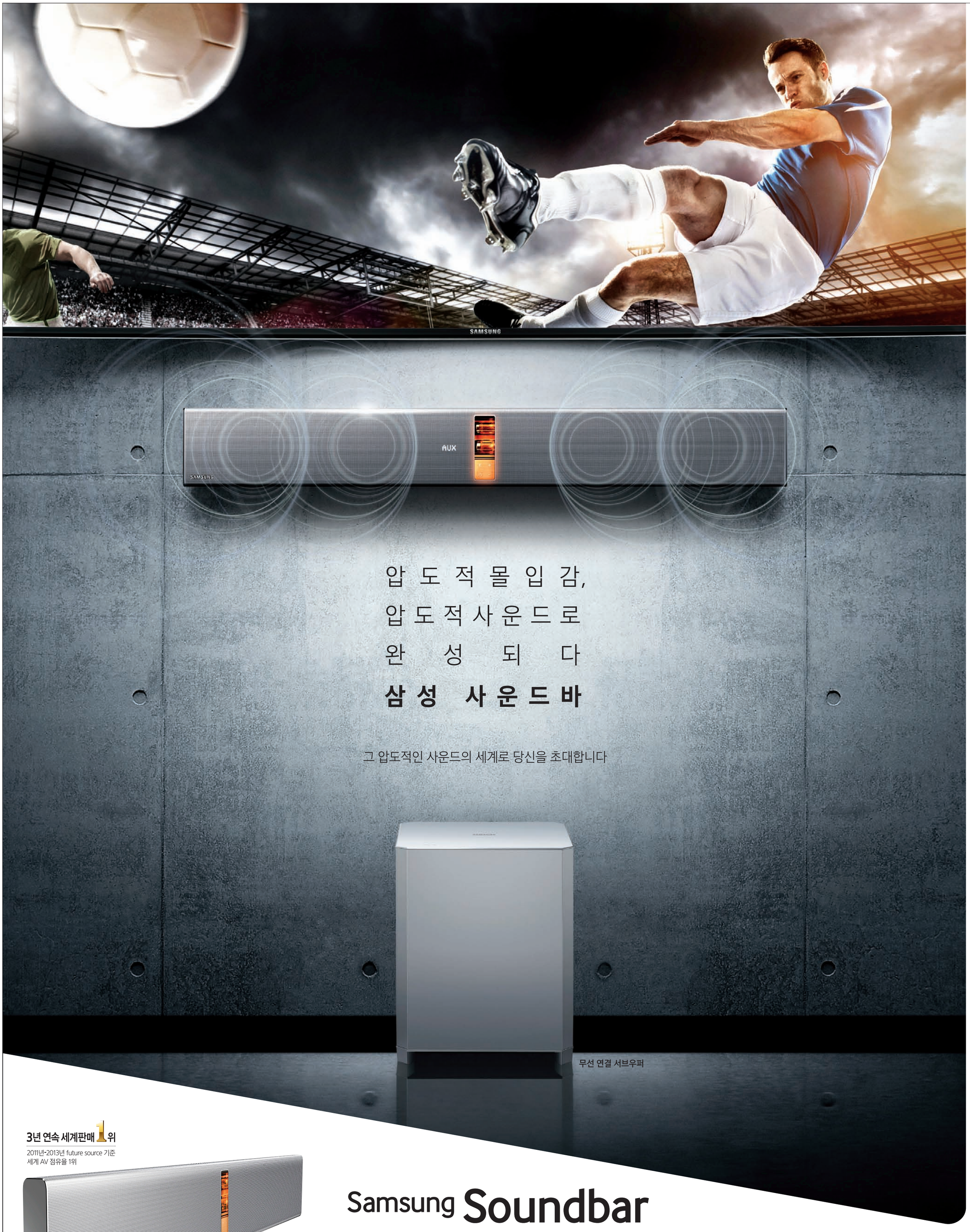
코렌 주가 추이
단위: 원



코렌은 늘어나는 수요 만큼 생산 캐파도 대폭 늘린다.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필리핀에 신공장을 짓고 있다. 약 1만1239.7㎡(약 3400평)규모 4층 높이다. 신공장이 가동되면 기존 350만개의 생산능력이 1500만개 규모로 늘어난다. 필리핀 공장이 설립되는 카비테 지역은 필리핀 무관세 지역으로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코렌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1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2% 증가했다. 매출은 14.39% 줄어든 209억7100만원을, 순이익은 13.79% 늘어난 6억1600만원을 올렸다.

송영록 기자 syr@



3년 연속 세계판매 1위

2011년-2013년 future source 기준
세계 AV 점유율 1위



※사양은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Samsung Soundbar



Soundbar **H751** Soundbar **H551** Soundbar **H450**

진공관 앰프로 감성을 더한 **프리미엄 사운드** · 생생한 감동을 배가시켜주는 **4.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무선으로 연결되는 **사운드 커넥트**

삼성전자 SAMSUNG